■ 민족문화연구 제96호(2022.8.3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9-50.
http://doi.org/10.17948/kcs.2022..96.9

【 특집 : 『金石集帖』의 종합적 연구 1 】

『금석집첩』과 『금석속첩』의 성립에 관한 탐색*
—김재로 본종·방친 비탁과 청풍김씨 문인 찬술 비탁에 대하여—

심경호(沈慶昊)**

목 차

1. 서론
2. 『금석집첩』·『금석속첩』의 김재로 본종·방친 비탁 수록 현황
3. 김재로 가계 비탁 수습 실태와 김재로 묘지명 작성자 김종후의 역할
4. 청풍김씨 본종·방친 여성묘주 비탁 수습의 의미
5. 청풍김씨 찬술 묘비 탁본 및 정치적 대립 인물 비탁의 수록 실상
6. 결론

국문초록

조선후기 최대의 금석문 탁본첩인 『금석집첩(金石集帖)』을 엮기 시작한 인물은 청풍김씨가의 정치가 김재로(金在魯)이다. 『금석집첩』의 탁본에 그의 본종선세(本宗先世)와 방친(傍親)의 비문 탁본을 별책으로 설정한 사실, 탁본 수집과 정리를 위한 목록이었다고 추정되는 『금석록(金石錄)』의 편자가 김재로로 되어 있는 사실로부터 그 점을 알 수 있다. 김재로는 조카 김치만(金致萬), 아들 김치일(金致一)·김치인(金致仁)과 함께 청풍김씨 본종·방친의 여성묘주 비석을 세우고 그 비탁을 수집하는 데도 적극적이었다. 이 무렵 김재로 등은 조선왕조의 국체(國體)를 파악할 수 있는 비탁들을 대대적으로 함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1S1A5A2A03068401)

** 고려대 한문학과 명예교수.

께 수집한 듯하다. 김재로의 사후 김치인과 김종후(金鍾厚), 김종수(金鍾秀), 김종정(金鍾正) 등이 『금석속첩(金石續帖)』을 이루고 그 속에 김재로의 묘표 탁본도 수록했으며, 『금석집첩』과 함께 전체의 편차를 재구성했고 『금석록』도 재정리했다. 『금석집첩』·『금석속첩』의 비탁 수집은 묘주(비주)의 신분과 지역에 대해 개방적이고 망라적인 태도를 취한 듯하면서도, 한편으로 정치적 이유에서 선별한 듯도 하다. 의외로, 청풍김씨 문인 찬술 비탁을 적극적으로 수집하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비탁의 취택에서 정치적인 편향성도 드러내고 있다. 그 이중성에 대해서는 향후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하다.

주제어: 『금석집첩(金石集帖)』, 『금석속첩(金石續帖)』, 김재로(金在魯), 『금석록(金石錄)』, 김치만(金致萬), 김치일(金致一), 김치인(金致仁), 김종후(金鍾厚), 김종수(金鍾秀), 김종정(金鍾正), 여성묘주비석(女性墓主碑石).

1. 서론

일본 교토대학 부속도서관 소장 일반귀중서 대형본인 『금석집첩(金石集帖)』과 『금석속첩(金石續帖)』 총 219책은 현재까지 발견된 조선시대 금석문의 탁본첩 가운데 최대의 성책본이다.[1] 이 탁본첩은 한국의 석비문과 묘비문 탁본을 수집하여 정리한 것으로, 소수의 현판 탁본, 비문목각 탁본, 중국인 비문 탁본, 중국 구득 탁본 등을 포함하여 총 2,092점의 탁본이 본편(本編) 206책, 속편 20책에 나누어 수록되어 있다. 탁본첩의 1종은 복본이다.[2] 그리고 『금석집첩』·『금석속첩』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이 고려대학교 육당문고

1) 심경호, 「교토대학 소장 금석집첩(金石集帖)에 대하여」, 『민족문화연구』 83,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9, 211-248면; 심경호, 『한국의 석비문과 비지문』, 일조각, 2021. 교토대학 중앙도서관 소장 『금석집첩』 및 『금석속첩』에서 탁본 2,092점을 확인했다. 『금석집첩』 및 『금석속첩』 일부 책자의 등에는 '欽欽軒' 묵서가 있다, 이것은 김재로의 軒號로 추정된다. 금석문은 碑題에 이름을 밝히지 않지만, 본고에서는 『금석집첩』 각 법첩의 목록과 『금석록』은 경칭 다음에 이름을 밝혀서 열람에 편하게 하기로 한다.

2) 교토제국대학 동창회지 『以文會誌』 제4호(1911년 신해, 11월)의 기사에 따르면 전년도 1910년(메이지 42년 11월)에 교토대학 동양사학교실에서 구입한 『금석집첩』은 250책이라고 했다. 박철상(『조선시대금석학연구』, 계명대 박사학위논문, 2014)은 해당 탁본첩이 정편 200책, 속편 19책이라고 추정했다. 한편 후지모토 교수는 『일본현존조선본연구(史部)』에서, 교토대학 소장본이 본래 219책인데 1책이 탈락되어 있어 모두 218권이며, 제1책(天)의 작성 시기 미상 삽지에 '二百二十七卷(內三冊落)'이라고 되어 있어, 과거 224책이 존재했다고 추정했다. 藤本幸夫, 『日本現存朝鮮本研究(史部)』, 동국대 출판부, 2018.

(六堂文庫) 소장 필사본 『금석록(金石錄)』이다. 이 목록은 청풍김씨의 정치가인 청사(淸沙) 김재로(金在魯, 1682-1759) 집안의 것이다.[3)]

고려대학교 소장 『금석록』은 본래 2,405점의 탁본들을 '천조(天朝)'부터 '석사(釋寺)'까지 34항목으로 분류하되, 정리대상 탁본첩을 천자문 순으로 배열했다. 『금석록』의 목록에 따르면 본래 '天朝'분목을 설정했다가 '산질권(散帙卷)'에 편입했다고 한다. 또한 『금석록』에서 '戰功'분목의 使자 책 목록 뒤에는 같은 분목에 속할 비제(碑題)들을 열거하고 각각 '산질(散帙)'이나 '비묘비제기사권(非墓碑諸紀事卷)'에 배속시킨 사실을 추기했다.

그런데 고려대학교 육당문고 소장 목록집 『금석집』의 목록이 惡 자로 끝나는 것으로 보아, 『금석집첩』·『금석속첩』은 천자문 순으로 정리하여 天자 책부터 惡자 책까지 226책이 완질이었을 것이다. 교토대학 소장본은 천자문 순서 가운데 薑자 책, 育자 책, 邇자 책, 惟자 책, 得자 책, 忘자 책, 維자 책, 空자 책, 谷자 책, 習자 책이 빠져 있다. 得자 책(173得)은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있다. 育자 책의 경우는 매우 특수하다. 본래 육당문고 소장 목록집 『금석록』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育(續)[闕] : 張參議崑表, 金承旨濟謙表(並入散帙卷)

장곤 묘표는 현재 교토대학 『금석속첩』에 옮겨져 있다[216正(교207金石續帖正:無)-6]). 김제겸 묘표는 일실본에 들어 있는지, 현전 『금석집첩』·『금석속첩』에는 들어 있지 않다. 『금석집첩』·『금석속첩』 편찬 단계에서 김육(金堉)과 성부(聲符)가 같은 '育'자를 피하고자 한 듯하다. 두 글자의 이름은 피하지 않고 한 글자의 이름은 피한다는 원칙을 적용했을 것이다.

한편 고려대학교 육당문고에는 별도로 탁본첩 『금석록』의 일부가 전한다.[4)]

---

3) 구자훈·한민섭, 「金在魯 『金石錄』의 구성과 그 특징」, 『한국실학연구』 21, 한국실학연구회, 2011, 237-302면. 구자훈·한민섭은 『금석록』에서 2,265점의 목록을 확인했다.

4) 필자는 서로 겹치는 탁본첩을 『금석집첩』·『금석속첩』의 복본이라고 보았으나, 고려대학교 소장본의 탁본첩은 표제가 『금석록』으로 되어 있다. 박철상 씨의 조사에 의하면 김재로의 欽欽軒 소장인이 있는 것으로, 국내의 공사립 소장처에 같은 유형의 『금석록』이 별도로 산견된다고 한다.

또한 일본 와세다(早稻田)대학 도서관에 서배에 흠흠헌이라 묵서되어 있는 『금석록』 책93이 있다. 이 속에 수록된 4점의 탁본들은 교토대학 『금석집첩』의 여러 권질에 중복되어 나타난다.[5] 고려대학교 소장 『금석록』이나 와세다대학 소장 『금석록』은 『급석집첩』이 편집되기 이전에 같은 김재로 가에서 편집된 탁본 전질의 낙질로 추정된다. 본래 『금석록』이라는 표제는 다른 여러 집안의 탁본첩에도 사용된 일반명사이기도 했을 것이지만,[6] 김재로와 자질들이 새로 정리하면서 『금석집첩』의 서명을 사용하고, 김재로 사후 『금석속첩』을 추가했으리라 추정된다.

그런데 흠흠헌 구장의 탁본첩 『금석록』이 모두 현전하는 『금석집첩』의 기초가 되었다면, 어째서 고려대 소장 탁본첩 『금석록』에 들어 있는 동일 묘주(비주)의 비문 탁본이 『금석집첩』에도 수록되어 있는가 하는 의문점이 든다. 이를테면 교토대학 소장 『금석집첩』의 禍자 책은 모두 19점을 수록했는데, 『금석록』 禍字冊[釋寺 부류] 19점의 목록과 일치하고, 고려대학교에 탁본 7점을 수록한 禍자 책 『금석록』이 별도로 존재한다. 곧 고려대학교 소장 『금석록』은 해체되어 이월·재편되지 않았고, 교토대학 소장 『금석집첩』·『금석속첩』이 별도로 성책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것은 『금석집첩』 성립 단계에 복본이 존재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앞으로 국내외 공사립 도서관이나 개인 소장의 『금석록』을 조사하여, 그 가운데 김재로 집안 정리본으로 추정되는 『금석록』을 분간(分揀)하고, 김재로 집안 정리의 『금석록』과 교토대학 소장 『금석집첩』을 대조해서, 그 이월 관계나 별도 편찬 과정을 다시 논해야 할 것이다.[7]

---

5) 심경호, 『한국의 석비문과 비지문』, 일조각, 2021, 87면.

6) 兪晩柱, 『欽英』 제14책, 1782년 7월 23일(무오) 조에, 유만주가 欽本·尹本·桂本·蘭本·閣本의 탁본첩을 보았다는 기록이 있다. 흠본은 김재로 가의 흠흠헌본 『금석록』으로 추정된다.

7) 고려대학교 탁본첩 『금석록』에서는 교토대학 『금석집첩』·『금석속첩』 천자문 권차 가운데 일실된 邇자 책, 過자 책, 忘자 책, 維자 책, 習자 책의 일부가 확인된다. 참고로 교토대학 소장 『금석집첩』에서 천자문 공번에 수록되어 있어야 할 탁본이 고려대학교 소장 『금석록』에 남아 있는 예들을 살피면 다음과 같다. 薑자 책: 양쪽 모두 없음, 育자 책: 양쪽 모두 없음(『금석록』 목록에서도 闕로 되어 있음), 邇자 책: 고려대학교에 탁본 3점 현존, 惟자 책: 양쪽 모두 없음, 過자 책: 고려대학교에 탁본 1점 현존, 忘자 책: 고려대학교에 탁본 1점 현존, 維자 책: 고려대학교에 탁본 1점 현존, 空자 책: 양쪽 모두 없음, 谷자 책: 양쪽 모두 없음, 習자 책: 고려대학교에 탁본 2점 현존.

그런데 『금석집첩』·『금석속첩』에는 '본종선세(本宗先世)'와 '방친(傍親)'의 분류항을 지닌 묘비 탁본첩이 들어 있다. 이 '본종선세'와 '방친'은 바로 김재로를 기준으로 하는 명명이다. 『금석집첩』의 탁본에 그의 본종선세(本宗先世)와 방친(傍親)의 비문 탁본을 별책으로 설정한 사실, 탁본 정리를 위한 목록이었던 『금석록』의 편자가 김재로 가계인 사실로부터 그 점을 알 수 있다.

본고는 『금석집첩』에 수록된 김재로 일가 묘비문의 수록 현황과 김재로 가계 인물에 의해 작성된 묘비문의 수록 현황을 살펴, 『금석집첩』·『금석속첩』의 성립 과정을 추론하기로 한다. 또한 『금석집첩』·『금석속첩』 편찬자들이 말하는 본종과 방친의 범위에 대해 밝히기로 한다.

2. 『금석집첩』·『금석속첩』의 김재로 본종·방친 비탁 수록 현황

교토대학 소장 『금석집첩』의 제11책부터 제14책까지는 김재로의 선세, 조고 이하 4세, 선고와 선형, 방친의 묘비를 탁본한 것들을 수록했다.[8] 제11 宿字冊(先世), 제12 列字冊(祖考以下四世), 제13 張字冊(儉齋碑/胤相), 제14 寒字冊(傍親)의 순서이다. 『금석속첩』으로 구성된 來자 책, 暑자 책, 往자 책, 秋자 책, 收자 책 등 5책도 모두 김재로의 후손이 김재로와 그 친인척 묘주의 비문 탁본을 수집한 것이다. 往자 책에 김재로 묘표가 들어 있다. 즉, 교토대학 『금석속첩』 往자 책에 들어 있는 「소산묘표(蘇山墓表)」와 「소산하묘표(蘇山下墓表)」는 김재로 자신이 죽은 후 그의 묘역에 건립한 비석들이다.[9] 소산은 인천 소래산(蘇來山)을 말한다. 『금석집첩』·『금석속첩』 수록 김재로 일가 비탁(碑拓) 수록 현황은 〈부록1 표〉를 참고로 하기 바란다.

『금석집첩』(『금석속첩』)에 김재로의 묘비가 들어 있는 사실을 참고로 하고,

8) 『금석집첩』의 각 법첩은 책마다 외표지 왼쪽에 수록 탁본의 간략 명칭을 대개 2단에 걸쳐 해서로 적었다. 간혹 표지 안쪽에 탁본의 간략 명칭을 1단으로 배열하여 행초로 적었다. 『금석속첩』은 표지 안쪽의 작은 箋紙에 수록 탁본 명칭을 나열했다.

9) 「소산묘표」는 「領議政金在魯墓 貞敬夫人靑松沈氏祔左」의 묘표로, 비문은 南有容이 찬하고, 사위 徐懋修가 글씨를 써서, 1761년(영조 37, 신사)에 건립했다. 南有容, 「議政府領議政致仕贈諡忠靖金公墓表」, 『雷淵集』 卷24. 행장과 묘지명은 金鍾厚가 지었다. 金鍾厚, 「仲祖領議政忠靖公行狀」, 『本庵集』 卷9; 金鍾厚, 「仲祖領議政忠靖公墓誌銘幷序」, 『本庵集』 卷8.

〈부록1 표〉의 묘도문자 찬술자, 서자, 전액자 등을 검토한 결과, 김재로가 탁본을 수집하여 1차로 정리한 후, 김재로 사후 아들 김치인(金致仁, 1716-1790), 김재로의 조카인 김치만(金致萬, 1697-1753)의 아들 김종후(金鍾厚, 1721-1780), 김재로의 족질인 김치후(金致垕, 1692-1742)의 아들 김종정(金鍾正, 1722-1787), 김종후의 아우 김종수(金鍾秀, 1728-1799) 등이 2차로 탁본을 수집하고 전체를 다시 정리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김재로 가계는 이른바 청풍김씨 의왕 입향조 증 병조판서 청평군(淸平君) 김우증(金友曾)의 가계이다. 김재로는 김구(金構, 1649-1704)의 차남이다. 김구의 묘와 그 직계의 묘는 서울 송파구 몽촌토성(夢村土城) 안에 있다. 김구는 사후 충청도 충주의 선산에 안장되었으나 40년 뒤 1743년 현재의 위치로 이장되었다. 이 일대는 김구의 후손들이 향장(鄕莊)과 선영(先塋)을 마련했다. 1743년(영조 19) 김구의 봉분 바로 앞에 묘표(墓表)가 수립되는데, 앞면에 한호(韓濩)의 글자를 집자(集字)해서 '우의정충헌김공휘구묘 정경부인전주이씨부좌(右議政忠憲金公諱構墓 貞敬夫人全州李氏祔左)'라고 새겼다.[10] 같은 해 김구의 신도비도 건립되었는데, 신도비문은 이의현(李宜顯)이 찬술하고 여서(女婿) 서명균(徐命均)이 글씨를 썼으며 유척기(俞拓基)가 전액을 올렸다. 음기(陰記)는 김재로가 찬술하고 김구의 손자이자 김재로의 조카인 김치만(金致萬)이 글씨를 썼다.

김재로는 소격동(昭格洞)에 살아, '격동(格洞) 상국(相國)'이라 일컬어졌다. 영의정으로서 1744년(영조 20)에 좌의정 송인명(宋寅明), 우의정 조현명(趙顯命), 그리고 형조판서 서종옥(徐宗玉), 호조판서 김약로(金若魯), 예조판서 이종성(李宗城), 부사직(副司直) 이일제(李日躋)·김상성(金尙星)·구택규(具宅奎) 등과 함께 『속대전(續大典)』을 엮어, 교서관(校書館)에서 6권 4책으로 간행했다. 1758년에는 목판본 30권 5책의 『예기보주(禮記補註)』를 간행했다. 김재로의 문집은 남아 있지 않지만, 『본말록(本末錄)』과 『청사일기(淸沙日記)』가 전한다.[11] 김재로 사후 자제

10) 글씨를 조각할 때 쐐기형태로 글자를 새기지 않고 평면새김법을 사용했다. 청풍김씨 가문에서 최초로 건립된 石峯 集字碑이다. 김민규, 「觀復齋 金構(1649-1704) 墓 石物 硏究」, 『향토 서울[현 서울과 역사]』 88, 서울역사편찬원, 2014, 69-103면.

11) 金在魯 저, 정병섭 역, 『(譯註) 禮記補註』, 學古房, 2018 ; 金在魯 저, 『本末錄』 1-7, 淸風人學術

들은 인천 남동구 운연동(雲宴洞) 소래산(蘇萊山) 산복(山腹)을 묘역으로 점복했다.

『금석집첩』·『금석속첩』 수록 김재로 일가 묘비문 가운데 가장 대수(代數)가 올라가는 것은 11대조 김관(金灌, ?-1517)의 「호조참의 증의정부좌찬성김공휘관묘(戶曹參議贈議政府左贊成金公諱灌墓)」의 묘표 탁본이다. 청풍 김씨 시조 김대유(金大猷)[12]의 묘는 충북 제천시 수산면 도전리에 있다. 하지만 『금석집첩』에는 시조의 묘비 탁본이 들어 있지 않다. 청풍김씨는 중종반정의 공신 김우증(金友曾) 때부터 흥기했다. 김우증은 백운산 아래 왕림(旺臨) 마을[현 경기도 의왕시 왕곡동 산 4-1] 일대를 사패지로 받았다.[13] 그 사당은 백운사(白雲祠)이다. 이곳에 정조 대왕이 왕림했다고 하여, 마을 이름을 왕림촌이라 부른다고 한다.

김재로 가계는 청풍김씨 10세 김우증(金友曾)으로부터 김여광(金汝光)-김계(金繼)-김인백(金仁伯)[김충백의 아우]-김극형(金克亨)-김징(金澄)-김구(金構)와 김유(金楺)로 이어지는 가계이다. 김재로는 친척 김상로(金尙魯)나 김약로(金若魯)의 노론 벽파에 가담하지 않고, 또 노론 시파나 노론 탕평파에도 동조하지 않았다. 그의 아들 김치인과 종손자 김종수는 노론 청명파의 지도자가 되었다.

한편, 청풍김씨 일파는 한성부 가회방(현재 서울 종로구 가회동)에 세거했는데, 1761년(영조 37) 김시묵(金時默)[14]의 딸이 세손빈에 간택을 받았다. 곧 정조 이산(이성)의 정비 효의왕후이다. 효의왕후는 순조 때 타계하지만, 김시묵의

研究會, 1988. 『본말록』은 모두 78권인데 제1-2권과 제17권이 누락되어 있으며, 1714년(갑오)부터 1748년(무진)까지의 재조일기(在朝日記)이다. 『청사일기』는 영인본 『본말록』의 제7권에 수록되어 있는데, 전체 11권 중 제7권과 제8권이 결락되어 있다. 1698년(무인)부터 1759년(기묘)까지 연보 형태의 일기이다.

12) 신라 대보공 김알지의 후손인 김순웅의 12세손이라고 한다. 고려 말 문하시중을 지내고 청풍부원군에 추봉되었다. 후손들은 본관을 청풍으로 하였다.

13) 김우증은 연산군때 무신으로서 정주목사를 지냈는데, 중종반정에 공을 세워 정국공신에 책록되었다. 사패지는 동쪽 白雲山, 서쪽 五峯山, 남쪽 遲遲臺, 북쪽 慕洛山에 이르기까지 사방 십리이다. 후손들이 세거하기 시작하면서 취락이 형성됐다. 경기도 의왕시 왕곡동 산 4-1에 淸平祠가 있다. 신도비는 1764년(영조 40년) 건립되었는데, 7대손 영의정 金尙魯가 짓고, 8대손 영의정 金致仁이 쓰고, 9대손 이조판서 金鍾正이 篆額을 했다.

14) 領敦寧府事 金佑明의 현손으로, 할아버지는 金道泳, 아버지는 병조판서 金聖應이며, 어머니는 洪禹寧의 따님이다. 金聖集에게 입양되었다. 정조의 비 孝懿王后의 아버지이다. 아들이 공조참의 金基大이고, 손자가 형조참판 金宗善이다.

아들 김기대(金基大)는 공조참의, 손자 김종선(金宗善)은 형조참판에 이르렀다. 『금석집첩』·『금석속첩』 편집자들은 이 계열의 비탁을 수집하는 데 적극적이지는 않았다.

그리고 왕림 마을에는 김우증(金友曾)-김여광(金汝光)-김계(金繼)-김충백(金忠伯)-김익신(金益新)-김수(金洙)-김간(金幹)-김태로(金泰魯)-김치후(金致垕)-김종정(金鍾正)-김명연(金命淵)-청녕군(淸寧君) 김동건(金東健)과 그 아우 김동헌(金東獻)으로 가계가 이어졌다. 김충백과 김인백은 김계(金繼)의 자제들이다. 김계는 숙종 초 효성으로 알려져 호조참의에 추증되었다. 김계의 묘갈 「증참의공묘갈(贈參議公墓碣)」은 이미 송시열(宋時烈)이 찬했지만 입각(入刻)되지 않다가 1793년(정조 17) 9월 비를 세웠다.[15] 『금석속첩』[021秋(교021金石續帖秋:無)]에 「효자증참의김공묘갈명(孝子贈參議金公墓碣銘)」의 탁본이 들어 있다, 안진경(顔眞卿) 글자로 집자하여 새기고, 전액은 이양빙(李陽氷) 글자로 집자하여 올렸다.[16] 김간은 호가 후재(厚齋)로, 박세채(朴世采)·송시열(宋時烈)의 문인인데, 그 묘표나 그가 찬술한 본종의 비문 탁본은 『금석집첩』에 들어 있다. 그러나 『금석집첩』·『금석속첩』 편집자들은 왕림 마을 거주의 종인들 비탁을 적극적으로 수집했다고는 할 수 없다.

3. 김재로 가계 비탁 수습 실태와 김재로 묘지명 작성자 김종후의 역할

김재로는 김시민(金時敏, 1681-1747)의 묘표를 찬술했다. 김시민의 『동포집』(1757년경 운각인서체활자본)의 부록에 행장[西原韓元震謹狀], 묘지명[韓山李秉淵謹撰], 묘갈명[林川趙明履謹撰], 묘표[淸風金在魯謹撰]가 실려 있다[17] 그런데 『금석집첩』·『금석속첩』은 김시민 관련 비석 탁본으로 186使(교178使:戰功)에

15) 김계는 효성으로 이름이 났다. 12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고질병을 앓는 어머니를 40년 동안 수발했다. 왜적이 쳐들어 왔을 때 모친의 소재를 잃었는데, 적진에 들어가 울부짖으며 어머니를 찾자 왜적들도 감격하여 결박을 풀어주고 보냈다고 한다. 宋時烈, 「贈戶曹參議金公墓碣銘幷序」, 『宋子大全』 卷176 墓碣; 『금석속첩』 [021秋(교021金石續帖秋:無)] 「孝子贈參議金公墓碣銘」. 『금석속첩』 탁본의 마지막에 "崇禎紀元後三癸丑九月 日立. 書集顔眞卿字, 篆集李陽氷字."라는 지(識)가 있다.

16) 안진경 집자비는 18, 9세기에 유행했다. 王亞楠, 「18~19世紀 朝鮮 集字碑 一考 —顔真卿集字碑為中心」, 『東洋學』 78, 檀國大學校 東洋學硏究院, 2020.1, 141-158면.

17) 金時敏, 「墓表」[淸風金在魯謹撰], 『東圃集』 附錄.

「진목김공전성각적비(晉牧金公全城卻敵碑)」의 탁본은 수록했으나, 묘표 탁본은 수록하지 않았다. 『동포집』은 김재로가 사망하기 전에 간행되어, 그 집안에서도 열람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김재로 찬술의 김시민 묘표를 탁본하지는 않았다.

1759년(영조 35) 김재로가 죽은 후 1760년 9월 김종후는 종조의 묘도문자를 작성하기 위한 자료로 그 행장을 작성했다.[18] 1761년 김재로의 아들 김치인(金致仁)이 남유용(南有容, 1698-1773)에게 묘표를 부탁하여 1761년 10월 건립하고, 1764년 봉우리 너머 10여 보의 곳에 이장하고 1771년 김종후에게 묘지명 찬술을 맡겼다.[19] 남유용 찬술 묘표를 새긴 비석을 탁본한 것이 『금석집첩』에 있는데, 묘표 건립일을 "崇禎紀元後三辛巳十月 日立"이라고 명시했다. 정조 2년에 김재로는 영조의 묘정에 배식되었다. 다만 김재로의 종형 김상로(金尙魯)가 사도세자의 경진년(1760) 사건이 일어나도록 만든 장본이었다는 이유로 김재로에 대해서도 평가가 엇갈렸다.[20]

김재로 관련 비문 가운데 남유용 찬술의 묘표문이 찬술 시기는 앞서지만, 행장을 작성했던 김종후 자신이 찬술한 묘지명이 묘주의 인품, 행적, 정치업적에 관한 서술을 자세하게 하여 신사(信史)의 자료가 되도록 했다. 김재로는 안주에 성을 개축하고 김해에 산산창(蒜山倉)을 설치하게 하는 등,[21] 국방과

18) 金鍾厚, 「仲祖領議政忠靖公行狀」, 『本庵集』 本庵集 卷8 行狀. 글 끝에 "崇禎紀元後三庚辰九月日, 兄孫前行世子翊衛司洗馬鍾厚, 謹狀"이라 서명했다. 또한 金在魯 저, 『本末錄』 1-7(淸風人學術硏究會, 1988) 제7책에 「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 世子師致仕奉朝賀 贈諡忠靖公淸沙先生金公行狀」(兄孫 鍾厚撰)과 「行狀後識」(狀成二十有一年四月甲寅 不肖孫 鍾純 謹記)가 있다.

19) 金鍾厚, 「仲祖領議政忠靖公墓誌銘幷序」(辛卯). 『本庵集』 卷8 墓誌; 南有容, 「議政府領議政致仕贈諡忠靖金公墓表」. 『雷淵集』 卷24.

20) 정조는 즉위년 3월 1일에, 앞서 병진년(1736, 영조12) 3월 15일 사도세자의 세자 책봉례 때 宮銜이었던 金在魯와 趙顯命을 추념하여 각각의 손자를 모두 의망하라고 명하였다. 그러자 이조에서는 金鍾純은 사도세자의 경진년(1760) 사건을 초래한 金尙魯의 후손이고, 趙潤鎭은 역적 金壽賢의 공초에서 徒黨으로 언급되었다는 이유로 의망에 반대하였다. 『정조실록』 즉위년 3월 30일, 20년 3월 1일.

21) 『승정원일기』 영조 13년 3월 22일 기록에, 좌의정 김재로가 安州 성밖 南塘村에 성을 수축할 것을 아뢴 사실이 나와 있다. 또 『영조실록』에 의하면 1740년(영조 16) 10월에 영의정 김재로가 강도江都의 축성을 건의하였고, 1742년에 강화 유수 金始煥이 벽돌을 구워 축성할 것을 건의하여 1744년 7월에 김시혁이 축성 공사를 마쳤음을 보고하였다. 그리고 丁若鏞의 『經世遺表』 권12 「地官 修制」에 1744년 영의정 김재로가 경상도 김해 鳴旨島에 산산창을 설치한 사실을 밝혀두었다.

경제에도 주의를 두었다. 하지만 남유용 작성의 묘표문이나 김종후 작성의 묘지명은 그러한 사실을 크게 부각시키지 않았다. 김재로 묘지명과 묘표에서 정치적으로 중요한 부분의 서술 내용을 서로 비교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김종후 찬 김재로 묘지명과 남유용 묘표의 내용 비교

金鍾厚 「仲祖領議政忠靖公墓誌銘幷序」(辛卯=1771)	南有容「忠靖淸沙金公在魯墓表」(『雷淵集』 수록 「議政府領議政致仕贈謚忠靖金公墓表」) 1761년
[1-ⓐ] 上之十一年乙卯, 進拜判義禁府事金公爲左議政, 越三年丁巳, 遞判中樞, 翼年復相三年而升領相, 又六年而遞, 踰月又入相, 五年而遞. 辛未・癸酉皆復入則皆踰年而遞. 首尾二十年, 其處原任終年者, 止一年耳. 戊寅致仕, 己卯卒.	[3-ⓕ] 上三十五年己卯冬十月壬辰, 議政府領議政致仕金公卒. 十二月甲申, 以禮葬于仁川府蘇來山負甲之原. 自始疾, 太醫賚藥, 交於道, 訃聞, 上將與世子臨哭, 公子侍郎君追公遺志, 上章辭, 上乃止, 降手書, 宣讀于殯前. 承旨奉御製諭祭者三, 以御筆賜謚曰忠靖, 盖曠典也.
[1-ⓑ] 始公皇考忠憲公相肅宗未幾而卒, 卒七年而公登朝, 肅宗遇之甚. 歷事景宗, 至今上朝, 遂繼忠憲公相, 上嘗諭公曰: '予受敎于聖母矣.先王每稱卿可大用.' 及公卒之七年, 上擢公子致仁爲相曰: '先卿之子也.' 蓋公遭際之盛, 爲國朝稱首云. 公葬在仁川府東蘇來山之甲原, 公子今領相公, 命公之兄孫鍾厚誌其壙曰:	
[2] 公諱在魯字仲禮自號淸沙. (중략) 考諱構, 右議政謚忠憲, 肅宗以才德褒焉. 妣貞敬夫人全州李氏, 都正夢錫女也. 生公以肅宗八年壬戌.	[2] 公諱在魯, 字仲禮, 號淸沙. 淸風人. 考諱構, 右議政忠憲公, 妣貞敬夫人李氏, 敦寧府都正夢錫女. 公以肅宗八年壬戌生,
[3-ⓐ] 壬午進士, 庚寅庭試及第. (중략) 選爲副修撰・校理, 則兩上箚得正柳鳳輝・洪萬遇等誣訐宋文正公之罪. (중략) 出安邊府使, 湖南均田使, 奏用長尺以益下, 盡刷諸宮家冒占民田者還之. 兼承文院副提調, 進秩, 左尹兼備邊司提調・同知義禁府事, 歷禮兵二曹參判. 時則景宗元年辛丑也, 相臣金昌集・李頤命・趙泰采・李健命, 爲羣小坐以建儲事皆死, 一時善類死徙略盡. 公遂從開城留守削黜. 癸卯配理山. 量移順安.	[3-ⓐ] 壬午擧進士, 庚寅擢庭試乙科. 自翰林, 事肅宗, 至下大夫所踐履, 極一世淸要, 而隨事獻忠, 必本之君德, 肅宗甚重之. 事景宗, 於元年, 至亞卿, 無何賊臣起誣獄, 殺建儲大臣四人, 一時忠良, 不桎梏死則嶺海矣. 公初配理山。移順安.
[3-ⓑ] 甲辰今上嗣位, 乃赦歸. 乙巳由右尹爲大司諫, 上疏言天誅不行, 忠邪混淆, 患在上以避嫌爲公,	[3-ⓑ] 今上初赦歸, 以副提學, 合兩司, 請正賊臣鳳輝・光佐等五人罪. 弼夢等反, 以忠州牧使兼湖西

失人君體. 稍歷舊踐爲吏曹・禮曹參判, 兼世子左副賓客・同知春秋館事. 以副提學詩柳鳳輝・李光佐等罪. 旋陞提學, 力辭遞, 兼知義禁府事. 丁未上悉黜請討罪人者, 公從罷職. 戊申弼夢反, 上起公爲忠州牧使兼湖西安撫使, 公沉機制箄控扼, 嶺以南州郡不得復動. 還吏曹兼同知經筵. 時光佐相, 公引前請討義辭, 命削黜. 旣而上念忠州勞, 進知敦寧府事. 己酉兼守禦使, 公辭如前益力, 乃責補黃海道觀察使. 約己綜務, 甦民於饑. 庚戌以兵曹判書還, 慈仁公明, 士旅胥悅, 兼藝文提學, 則又力辭遞, 歷判尹・左參贊・知經筵事. 壬子, 判義禁府事, 又判敦寧府及戶曹. 癸丑, 入吏曹. 甲寅, 僚貳欲引李喆輔爲郎, 公以喆輔由癸卯誣獄登第故不許, 坐是出慶尙道觀察使. 至則不以位高怠事, 爲明向背善惡以化俗. 乙卯還禮曹判書, 歷刑曹, 復授吏曹, 不拜坐罷職, 叙歷舊踐.	安撫使, 隨機制箄, 控扼嶺南, 朝廷無上游之憂者, 皆公力也. 入拜吏曹參判. 時光佐已復爲相矣, 公耻之, 力辭得罪去. 旣而上念忠州功, 進秩正卿, 拜守禦使. 又辭, 責補海西觀察使, 以兵曹判書召還, 尋判吏曹. 會選曹郎, 僚堂欲用癸卯科人, 公執不可. 癸卯科者, 誣獄成, 謂之討逆而設者也. 坐是出觀察嶺南, 以禮曹判書入,
[3-ⓒ] 遂入相, 首戒上擧措不能磊落正大, 又勉以孔子不逆詐不億不信, 毋意毋必毋固毋我, 爲藥石. 明年奏復辛丑相臣趙忠翼・李忠愍諡. 又明年請復金・李二相臣官. 羣小攻嚇之大擾, 上爲罷公而拜李光佐領相, 復公左相兼扈衛大將, 公義不與光佐並相, 力辭者百餘, 因箚言光佐黨與勢張甚, 上責解職. 俄以判中樞, 奉使于北, 還復入相. 庚申上乃復金・李二相臣官, 而火壬寅獄案, 獨猶名金龍澤等五人爲逆. 有司議五人收孥籍産, 公奏特免之. 仍奏復金相諡忠獻・李相諡忠文, 及洪啓廸・金雲澤・民澤・趙聖復・李弘述・尹愨・李宇恒・李尙・白時耇贈官.	[3-ⓒ] 未幾拜相. 進位元輔者凡四矣. 當是時, 世道之消長屈伸, 不一其變, 而公積誠彌綸, 卒復定策大臣金忠獻・李忠文・趙忠翼・李忠愍諡, 復寃死臣洪啓迪・金雲澤・趙聖復・李弘述等贈官. 奏免金龍澤等五人孥籍.
[3-ⓓ] 丙寅奏復端宗時死事三相官. 丁卯正言任命周言事忤旨將被鞫, 公亟上箚爭止. 癸酉從西樞上疏, 諫鞫大提學趙觀彬, 不報.	[3-ⓓ] 端宗相臣皇甫仁・金宗瑞等死三百年, 名在丹書, 公白其寃, 悉復其官. 金聖鐸爲李玄逸訟寃, 公以爲玄逸者, 聖母之罪人也, 聖鐸敢爲之訟寃, 罪死不赦, 聖鐸竟杖流死. 嶺儒姜維上書被鞫, 公謂維名是章甫, 義附討逆, 不可刑, 忤旨罷而維得無死, 其辨於淑慝而著於事業者多類此.
	[5-ⓐ] 懿昭世孫之喪, 上疑其服, 公引禮言懿昭服不可以適孫論, 上議私廟祝式, 公言: '不可曰妣, 宜稱私親, 不可曰子. 宜稱國王.' 又議稱妃當否, 公言我國惟王后稱妃. 盖公之說禮, 常謹守經意, 此可見也[此其一二也-『雷淵集』].
[3-ⓔ] 乙亥, 國家旣誅致雲・錐等, 撰書述亂逆源委, 命公領其事. 公直書先朝相臣南九萬縱賊媒禍爲	[3-ⓔ] 國家旣討致雲・錐等諸賊, 將著書述亂逆本末, 公爲都提調立論, 以爲甲戌大臣倡爲深長慮之說,

亂首. 時有沮之者, 不能用, 識者惜之. 儒生姜維上書討崔錫恒罪, 語觸諱被鞫, 公箚爭之, 上怒罷公職而維得不死.	而和附者衆, 至溥潛者出則一隊人[一種人:『潘谿集』]情狀, 已與己巳兇黨合矣. 源頭一差, 流波寖漫, 爲辛壬焉, 爲戊申焉. 式至今階禍, 是書起端, 宜自甲戌始. 尋有沮之者, 公之論, 竟不行, 識者惜之.
[3-ⓕ] 公自辛未引年請致仕, 至戊寅始得許, 屢降手書勞問焉. 翼年十月十五日, 捐館舍.(중략)御筆謚曰忠靖. 用十二月甲申, 官具葬如儀.	[3-ⓕ] 公年七十, 卽請致仕, 上固不許. 至戊寅始得請, 踰年卒, 壽七十有八.
[4-ⓐ] 公淸瘦僂然, 子諒樸率, 表裏如一. (중략)	
[4-ⓑ] 公退唯書卷不去手. (중략)	
[4-ⓒ] 旣歿, 上語及之則曰: '惟某有懷無隱.' 其爲國政, 務在不撓民, 故民聞公喪者咸曰: '愛人之君子亡矣.'	
[5-ⓐ] 雅習於禮. 凡邦禮之難疑者, 惟公之正. 嘗爭毓祥宮祔辭, 不可曰妣曰子, 又不可稱妃, 上屢强之而一不變.	
[5-ⓑ] 所著有『禮記補註』十卷, 文集幾卷.	
[6-ⓐ] 配靑松沈氏. (중략)	[6-ⓐ] 配沈氏, 府使澱女, 從封貞敬夫人.
[6-ⓑ] 有男三人. (중략)	[6-ⓑ] 擧三男.(중략)
	[4-ⓐ] 公宰相子, 早顯而謙恭好禮, 篤於倫理. 自事親奉先, 至處兄弟宗族, 皆可爲有家者法. 其致身事君, 盖自有基本矣. 立朝五十年, 爲相居其半, 而忠順淸愼, 信於上下, 顧惜國體, 練達朝章, 當國家多事, 疑議變禮, 皆待公以正, 而斟酌古今, 思慮深遠, 常惓惓於匡君鎭俗. 其在上前, 未嘗有懷諸心而不發於口. 或値上心未豫, 群臣震恐, 而公則必盡其言. 言又懇質由中, 絶無激訐干名之意. 故上獨察其忠愛, 多屈意而從之.
	[1-ⓑ] 肅宗每稱公可大用, 仁元大妃以語上, 而上以語公曰: '予之任卿, 先王意也.'
	[4-ⓑ] 家居不言生業, 公退, 手不去書. 樂善下士, 色笑可親, 不自知年位之高也. 文章詞理精當, 善發指歸, 然未嘗以詞藝自名. 提學兩館, 而皆固辭不居.
	[5-ⓑ] 所著有『禮記補註』十卷及文集幾卷.
[7] 銘[4언 4구 1전운. 6련 24구]	嘉善大夫 禮曹參判 兼守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知成均館事同知經筵春秋館事 世子右副賓客 元孫師傅 南有容撰. 甥, 通訓大夫 行恩津縣監 公州鎭管兵馬節制都尉 徐懋修書. 崇禎紀元後三辛巳十月 日立.

[1-ⓐ] 김재로는 을묘년(영조 11, 1735년) 판의금부사에서 좌의정이 된 이후, 신미년(1751)·계유년(1753)에 다시 영의정이 되고 다음 해 체직된 사실을 적었다. 20년 사이에 원임으로 한 해를 마친 것은 1년뿐이었다. 무인년(1758년) 치사하고 기묘년(1759년)에 졸했다. 부친 김구(金構)가 숙종 연간에 재상으로 있다가 죽은 후 7년 뒤에 김재로가 조관이 되어 숙종의 은우를 입었다. 영조 때 부친을 이어 재상이 되자, 영조는 인원왕후(숙종의 계비)로부터 선왕이 그대를 크게 쓸만하다고 일컬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22] 김재로가 죽은 지 7년에 그 아들 김치인을 재상으로 삼았다. 김재로는 인천부 동쪽 소래산 갑원(甲原)에 장사 지내졌는데, 김치인이 김재로의 형 김희로의 아들인 김종후에게 지문을 쓰라고 명했다고 밝혔다.

[2]는 김재로의 자, 호, 본관, 시조·증조·조·부모, 생년을 밝혔다. [3-ⓐ]는 김재로의 과정(科程)과 초기 환력을 서술했다. 김재로는 1710년(숙종 36) 경인정시(庚寅庭試)에 급제하여 지평·수찬 등을 지냈다. 1716년 송시열을 비난했던 소론의 유봉휘(柳鳳輝)·홍만우(洪萬遇) 등을 탄핵하여 파직시켰다. 경종 때 이조참의·대사간·개성부 유수 등을 지냈으나, 신임사화 때 개성유수에서 삭출되어 1723년 이산(理山)으로 유배되었다가 순안(順安)으로 양이(量移)되었으며 울산에 안치(安置)되었다.

[3-ⓑ][3-ⓒ]는 김재로의 영조 때 환력을 서술했다. 김재로는 영조 때 풀려나와 대사간이 되어 소론의 김일경을 사형시키게 하였다. 지춘추관사로서 실록도청 당상을 겸하여 『경종수정실록』 편찬에 참여하고, 1725년 신임사화로 죽은 김창집(金昌集)·이이명(李頤命)·이건명(李健命)·조태채(趙泰采) 등 노론 4대신을 신원(伸寃)하고 시호까지 내리는 을사 처분이 있게 했다. 1727년 정미환국 때 소론의 재등장으로 이조참판의 직에서 파직되었다가 이듬해(1728) 이인좌(李麟佐)의 난이 일어나자 충주 목사로 기용되고 호서 안무사를

22) 蘇軾의 고사를 염두에 두었으나 약간 다르다. 북송 哲宗 元祐 2년(1087) 소식이 궁궐에서 숙직할 때 英宗의 后이자 신종의 母后인 宣仁后가 便殿으로 불러, 상주 단련부사였던 소식이 대번에 이런 높은 지위에 오른 것은 先帝의 뜻이라고 알려주었다. 즉. 영종이 매번 소식의 문장을 誦讀할 때면 '奇才奇才'라고 감탄했는데, 미처 등용하지 못하셨을 뿐이라고 했다. 김재로의 경우는 선왕 때부터 높이 쓰려고 했고, 그것이 오늘날 실현되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겸하여, 이인좌(李麟佐)의 표종제인 문경 사람 조세추(曺世樞)를 붙잡는 공을 세워 분무원종공신(奮武原從功臣) 1등에 책록되었다. 1734년 신만(申晩)과 이철보(李喆輔)를 옥당에 의망하는 정사와 관련하여, 이조판서로 있던 김재로는 이철보가 응시했던 1723년(경종 3) 과거의 과명(科名)이 옳지 않다는 이유로 의망을 저지하였고, 참판 송진명(宋眞明)과 참의 서종옥(徐宗玉)은 신만이 이이명과 김창집의 신원을 청하는 상소를 올렸다는 이유로 의망을 저지하였다. 영조는 김재로를 경상 감사로, 송진명을 홍주 목사, 서종옥을 이천 부사(伊川府使)로 좌천시켰다. 1735년 3월 19일 좌의정 김재로는 이건명과 조태채의 시호를 회복하기를 건의하여, 영조가 윤허하였다. 4월 5일 대제학 윤순(尹淳)이 상소하여 반대하고 4월 16일 정언 심악(沈鑅)이 상소하여 반대했다.

1735년 11월, 영의정 김흥경(金興慶)의 청대(請對) 이후 노론의 김재로는 좌의정이 되고, 소론 탕평파 송인명은 우의정에 임명되었다. 11월 19일 민형수(閔亨殊)가 이종성(李宗城)이 사당(私黨)을 심는다며 소를 올리자 20일에 이종성이 민형수야말로 당론을 선동하는 자라고 비판하는 소를 올렸다. 좌의정 김재로가 11월 25일 연석에서 이 일을 거론하면서, 이종성이 상소에서 한 무제 때의 고관대작 김일제(金日磾)와 장안세(張安世) 등을 운운한 것은 민진원 집안을 공격한 것으로, 몹시 잘못되었으니 이종성을 견책하라고 청했다. 정언 박필간(朴弼幹)은 반대 소를 올렸다. 1736년 1월 1일에 영조가 하례를 받는 자리에서 좌의정 김재로는 우의정 송인명(宋寅明), 판중추부사 서명균(徐命均), 영돈녕부사 어유귀(魚有龜) 등과 합사(合辭)하여 왕세자를 일찍 세우도록 청했다. 봉조하(奉朝賀) 민진원(閔鎭遠)도 같은 의견을 아뢰어 3월 15일에 사도세자를 왕세자로 책봉했다. 1737년 8월 28일 영조는 인정문에서 조참(朝參)을 받고 1729년 8월 18일의 기유처분 내용을 재확인하고 이른바 '혼돈개벽'을 선언했다. 다시 당쟁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영의정 이광좌, 영중추부사 이의현(李宜顯), 좌의정 김재로, 우의정 송인명(宋寅明)에게 받아 낸 것이다. 하지만 12월 27일 좌의정 김재로는 차자를 올려 사직을 청했다. 이광좌가 과거에 자신의 부친을 탄핵하였다는 이유로 "똑바로 쳐다보고 싶지도 않다."라고 했다.[23]

1738년(영조 14년) 7월 25일 판중추부사 김재로는 진하 사은 겸 진주사로서 부사 김시혁(金始焃), 서장관 이양신(李亮臣)과 함께 청나라로 떠났다. 당시 조선 사신 일행은 인조반정에 대한 『명사(明史)』의 오기를 변무(辨誣)하였다. 건륭제(乾隆帝)가 11월 27일 특별히 「조선열전」 인본(印本)을 우선 반시(頒示)하자, 1739년 2월 2일 김재로가 그 인본을 가지고 와서 바쳤다.[24]

1739년(영조 15) 5월, 김재로는 금성대군(錦城大君)에게 내릴 시호의 삼망(三望)을 본 후, 육신에게도 시호를 추증하지 않았는데 단종 복위를 모의한 금성대군에게 시호를 내리는 것은 지나치다 하여 거두어들일 것을 청하였다. 1740년 3월 2일, 좌의정 김재로와 우의정 유척기(兪拓基)가 입시하여, 임인년(1722, 경종 2)의 무옥 때 억울하게 죽은 이들을 위하여 옥안을 번복할 것[번안(反案)]을 청했다. 영조는 송인명(宋寅明)과 조현명(趙顯命) 등의 반대로 옥안을 번복하는 것을 연기하다가 3월 13일에 국안의 이름을 '삼수역안(三手逆案)'에서 '임인국안(壬寅鞫案)'으로 바로잡게 했다.

[3-ⓓ] 1746년(영조 22) 단종 때 죽은 세 재상인 황보인(皇甫仁)·김종서(金宗瑞)·정분(鄭苯)의 복관을 주장하고, 9월에 기묘명현인 기준(奇遵)·김구(金緑)·김세필(金世弼) 등에게 관직과 시호를 추증하기를 건의해서 윤허를 받았다. 1747년 사간원 정언 임명주(任命周)가 상소 때문에 국문을 받게 되자 저지시켰다. 임명주는 이광좌(李光佐)·조태억(趙泰億)의 추삭(追削)을 건의했다가 영조의 노여움을 사서 제주(濟州)에 유배된다. 1753년 7월에 육상궁(毓祥宮)에게 시호를 올리고 소령원(昭寧園)을 조성하는 의식을 거행했는데, 대제학 조관빈(趙觀彬)이 죽책문(竹冊文) 제진(製進)을 거부하자 영중추부사 김재로는 조관빈을 국문할 것을 청했지만 불보(不報)되었다.[25]

[3-ⓔ] 1755년(영조 31) 나주괘서 토역 정시(討逆庭試) 시권에 영조와 조정을

23) 1695년(숙종 21) 11월 27일 당시 사헌부 지평 이광좌가, 김구가 강화 유수로 재직하던 시절 私的으로 影殿을 세웠다는 이유로 파직을 청한 일이 있었다.

24) 金鍾厚의 「仲祖領議政忠靖公墓誌銘幷序」에서는 李光佐 당과의 갈등에 초점을 두고 변무 사실에 큰 비중을 두지 않아, "公義不與光佐並相, 力辭者百餘, 因箚言光佐黨與勢張甚, 上責解職. 俄以判中樞, 奉使于北, 還復入相."라고 간단히 기록했다.

25) 『乾隆十八年癸酉七月初一日上謚封園都監儀軌』가 전한다.

비난하는 글을 쓴 심정연(沈鼎衍)의 변서 사건에 연루되어 신치운(申致雲)은 친국을 받으면서 “신은 갑진년(1724, 영조 즉위년)부터 게장을 먹지 않았으니 이것이 바로 신의 역심(逆心)입니다.”라고 말했다. 신치운은 복주(伏誅)되었다. 이조참판 심악(沈鑰, 1702-1755)도 연루되어 역적으로 몰려 처형되었다. 이후 김재로는 왕명에 따라 이천보(李天輔)와 함께 1721년(경종 원년)부터 1755년까지 역적을 토죄한 사실들을 모아 『천의소감(闡義昭鑑)』을 엮었다. 김재로는 두 재상인 남구만(南九萬)과 유상운(柳尙運) 및 임부(林溥)와 이잠(李潛)을 역적들의 근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논의를 하려고 했다. 하지만 저지하는 이가 있었고, 영조는 준엄하게 하교를 내렸다. 유상 강유(姜維)가 상서하여 최석항(崔錫恒)을 토죄하다가 영조의 뜻을 거슬러 국문을 당하게 되자 김재로는 차자를 올려 쟁집했다. 이로써 파직되었으나, 강유는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

[3-ⓕ] 김재로는 1751년(신미)부터 치사를 청했는데, 1758년(무인)에 비로소 허가를 받았다. 다음해 10월 15일에 연관(捐館)했다. 영조는 어필로 충정(忠靖)의 시호를 내렸다. [4-ⓐ] 김재로는 청수(淸瘦)하여 구부정한 모습이었다. 관직에 있으면서 청약(淸約)했다. [4-ⓑ] 음양장소(陰陽長消)의 때에 용심(用心)하였다. [4-ⓒ] 김재로가 죽은 후, 영조는 그가 ‘유회무은(有懷無隱)’했다고 회고했다. [5-ⓐ] 김재로는 육상궁의 축사를 두고 비(妣)라든가 자(子)라든가 할 수 없고 비(妃)라고 일컬을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선자(先慈) 또는 자친(慈親)이라 칭하기로 했다.[26] [5-ⓑ] 김재로는 원나라 진호(陳澔) 『예기집설(禮記集說)』에서 빠진 것을 보충하고 잘못된 곳은 고증하여 『예기보주(禮記補註)』 10권을 엮었다. 이보다 앞서 1709년(숙종 35) 최석정(崔錫鼎)이 『예기유편(禮記類編)』을 편찬하면서 『중용장구』와 『대학장구』를 주희와 다르게 배열하고, 이를 경연에서 진강하고자 했다. 동부승지 이관명(李觀命)을 필두로 배척 상소를 하고, 성균관 재임 김재로가 소두(疏頭)로 배척 상소를 한 바 있다.[27]

---

26) 『영조실록』 권80, 영조 29년(계유, 1753) 10월 22일(계묘). 영조는 예조판서 洪鳳漢, 지중추부사 元景夏를 입시하게 하여, 毓祥宮에 이미 官祭를 지냈으므로 祝文에 私親이라 칭할 수 없으니 先妣라 칭하는 것이 어떠한가 물었다. 홍봉한은 나가서 영의정 김재로에게 물어, 선비라 칭할 수 없다는 뜻을 전했다.

27) 『숙종실록』 권47, 숙종 35년(기축, 1709) 1월 18일, 2월 14일, 2월 16일.

[6-ⓐ] 김재로의 배위 청송심씨는 부사 심징(沈澄)의 딸(1682-1761)이다. [6-ⓑ] 김재로는 3남 1녀를 두고, 측실에서 2녀를 두었다. 장남 김치일(金致一)은 장악원정을 지냈고, 3남 김치언(金致彦)은 통덕랑이었는데, 김재로보다 먼저 죽었다. 김재로의 지문을 작성할 때 2남이 영의정으로 있었다.

남유용(南有容) 찬술의 묘표, 김종후(金鍾厚) 찬술의 지문 사이에는 정치적 사건의 서술에서 상략(詳略)의 차이가 있다. 김종후는 사건의 발단, 경과, 물의의 장본인을 정확하게 기록하고자 부심했다. 하지만 김종후 찬술의 지문은 탁본이 『금석속첩』에 수록되지 않은 듯하다.[28]

한편, 김재로의 조카 김약로(金若魯, 1694-1753)는 판서를 지낸 그의 형 김취로(金取魯), 우의정을 지낸 아우 김상로(金尙魯)를 비롯하여 집안 어른들의 묘비를 여럿 찬술하였고, 그 비탁들이 『금석집첩』에 수록되어 있다. 또한 김약로의 사후 김재로가 찬출하여 입각한 묘표의 탁본도 『금석집첩』에 수록되었다. 이천보(李天輔, 1698-1761)는 김약로의 초배 연안 이씨(1694-1728)의 묘지명을 찬술했는데, 매지(埋誌) 당시에 탁본을 해두지 않았는지, 『금석집첩』에 연안 이씨의 묘지명은 수록되지 않았다.[29] 김약로는 김취로・김상로와 함께 세도를 부렸다는 이유에서 물의가 있었다. 1751년(영조 27년) 3월 이존중(李存中, 1703-1761)이 상소하여 좌의정 김약로와 형조 판서 김상로 형제를 신임사화 당시의 적당(賊黨)이라고 탄핵했다.[30] 이존중이 죽고 나서 정조는 김약로가 김상로 형제의 비리를 힘써 탄핵한 공로가 있다고 하여 그를 이조판서 겸 대제학에 추증하게 된다.

김상로 또한 문집이 전하지 않는다. 1762년 사도세자의 처벌에 적극 참여해 영조의 동조를 얻었으나, 영조가 이를 후회하자 청주로 귀양갔으며, 특명으로 풀려난 뒤 봉조하가 되었다. 정조는 즉위한 1777년의 3월 30일에

---

28) 현재 일실된 자호의 첩에 들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나, 『금석집첩』・『금석속첩』이 동일 묘주에 관계된 묘도문자를 한 군데 집성하려고 한 것을 보면, 묘표 다음에 수록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29) 이천보 찬술의 연안 이씨 묘지명은 이천보의 문집에 들어 있다. 李天輔, 「貞夫人李氏墓誌銘」, 『晉菴集』 卷8 墓誌.

30) 영조는 大臣을 능멸하였다며 이존중을 거제도로 귀양 보내고 제주 旌義縣으로 배소를 옮겼으나, 이듬해 12월에 풀어 주었다. 『承政院日記』 영조 27년 3월 2일, 7월 2일, 영조 28년 12월 15일.

김상로의 아들 김치현(金致顯)이 언사소(言事疏)를 올린 일로 인하여 하교하면서, 김상로가 영조와 사도세자 사이를 이간질하고 사도세자를 모함한 죄가 있다고 천명하고 김상로의 관작을 삭탈하도록 했다.[31] 고종 때 다시 신원되었으며, 시호는 익헌(翼獻)이다. 성대중(成大中)은 『청성잡기(靑城雜記)』에 김상로 형제의 탐욕을 조롱하는 일화를 실어두었다.[32]

4. 청풍김씨 본종·방친 여성묘주 비탁 수습의 의미

청풍 김씨는 효종·현종·숙종·경종·영조·정조 시대에 정승 8명, 대제학 3명, 왕비 2명을 배출하였다. 3대 정승, 부자 영의정도 나왔다. 청풍 김씨가 명문이 된 것은 의왕 고천동 산31에 위치한 13세손 김인백(金仁伯)의 처 안동 권씨(1564-1632) 묘 때문이라고 전한다. 김인백의 3남 김극형(金克亨)이 지금의 그 땅에 모친을 장사지냈다고 한다.[33] 속설과 관련이 있는지, 『금석속첩』 暑字冊에 안동 김씨의 묘표 음기 및 비갈의 탁본이 있다. 안동 김씨는 현령 권대훈(權大勳)의 딸이다.[34] 묘표 음기는 안동 김씨가 정부인으로 추봉되는 해인 갑신년 즉 1704년의 정월에 새 묘표가 제작될 때 김구(金構, 1649-1704)가 지(識)를 작성했다.[35] 묘표 음기라고 할 수 있는데, 안동

31) 『정조실록』 권1, 정조 즉위년(병신, 1776) 3월 30일(신축) ; 동년 4월 2일(계묘).

32) 成大中, 『靑城雜記』 권3 醒言. "元判書景夏, 疾金尙魯之饕, 嘗獨語, 如與天神問答者然曰: '金尙魯貪賄如彼, 財當焉如?' 答曰: '必有歸處.' 問曰: '歸於何處?' 答曰: '歸戶曹.' 問曰: '其審然乎?' 答曰: '必然.' 其時傳爲笑談, 後果然. 大抵權宰, 受重餽則有之, 公招錢賄, 自尙魯始也. 貪風遂汚一世, 尙魯實爲罪首. 尙魯妻亦鷙暴, 遇前室子甚酷, 其婦婉, 不得食死, 子懲不復娶, 尙魯妹女, 嫁酷貧. 嘗至尙魯家宴, 竊首飾去, 將以衣其夫. 尙魯妻急追奪之, 女慚其夫家亡匿, 遂見棄. 尙魯常曰: '夫人也, 亡吾妹家.' 尙魯追逆, 妻子俱配濟州, 妻獨解還, 幾泊北岸, 遭颶, 竟死於海."

33) 김극형은 공조정랑이 되고, 아들 김징(金澄)은 문과 급제 후 동부승지와 전라도관찰사를 역임했다. 김징의 장남 金構는 문과에 장원급제하여 우의정에 이르고, 차남 金樑는 이조참판을 거쳐 대제학에 이르렀다. 김재로는 김구의 아들로 영조 때 영의정을 4차례 역임하고, 그 아들 김치인은 정조 때 영의정에 이르렀다. 김구-김재로-김치인 등 3대가 정승을 지낸 것이다. 한편 김유의 장남 김약로는 영조 때 좌의정, 차남 김상로는 영조 때 영의정을 지냈다. 김희로의 손자 김조수는 정조 때 좌의정을 지냈다.

34) 묘표 비제는 「贈吏曹判書金仁伯妻贈貞夫人安東權氏之墓」, 비갈 전액은 「贈貞夫人安東權氏墓碣」인데, 『금석록』에서는 각각 '五峰安東權氏墓表'와 '五峰安東權氏墓碣'이라고 저록했다. 묘의 주산이 오봉산이기 때문이다.

김씨의 부덕(婦德)을 간단히 적고 생졸(生卒)과 장사(葬事) 사실을 밝힌 뒤 세차자손(世次子孫)을 자세히 적고 추봉 사실을 밝혔다. 내외증현(內外曾玄)이 총 백 수십 인이라고 기록했다.

한편 「증정부인안동권씨묘갈(贈貞夫人安東權氏墓碣)」의 해서 비제는 「유명조선증정부인안동권씨묘갈명 병서(有明朝鮮贈貞夫人安東權氏墓碣銘幷序)」로, 현손 김재로가 찬(撰)하고 김약로가 전(篆)을 올렸으며, 김상로가 비문의 글씨를 썼다. 묘갈명이면서 해서 비제 다음에 찬자(撰者)·전자(篆者)·서자(書者)를 차례로 밝히고, 비주(묘주) 안동권씨의 시조를 명기하고 고조·증조·조·고의 4조를 밝혀, 사대부 망자의 신도비문에 준하는 양식이다. 김재로는 증조모 안동권씨가 병든 시모[金繼 부인, 순흥안씨]를 3년 동안 지성으로 간병하고, 시모와 상의하며 집안을 다스렸으며, 의복과 음식의 수격(手格, 손품)이 뛰어나 시모의 칭찬을 받은 일을 부각시켰다. 명절에 친정 어머니 해주오씨가 딸을 위해 그 시모에게 드릴 시식(時食)를 싸 보내려 했으나, 안동 권씨는 극력 말리고 자기 방에서 여종 한 사람과 스스로 시식을 갖추어 시모에게 올렸다고 적었다. 안동권씨의 이종오라비는 이귀(李貴)로, 이귀가 여러번 부인을 방문하기도 했으나, 부인은 한번도 간촉(干囑)하지 않을 만큼 염개(廉介)의 덕을 지녔다. 부인은 외가에서 생장하여 호화(豪華)한 것에 익숙했지만, 유학자의 빈한한 집에 시집온 뒤로 마치 평소 그렇게 지낸 듯이 풍족하지 않은 생활을 편안히 여겼다. 남편 김인백이 생계에 구애되지 않고 수지여행(守志勵行)한 것은 부인의 내조의 공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묘갈은 안동 권씨가 자제 훈육에 엄격했던 사실을 자세히 적었다. 즉, 안동 권씨는 자애롭되 엄하게 훈육했으며, "내가 너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너를 어질게 대하기 때문에 이러는 것이다.[此非余嫉汝, 乃所以仁汝也.]"라고 밝혔다고 한다. 한가한 날에는 자식들에게 선조 대의 일을 들려주어 면려했으며, 그 끝에는 울면서, "지난날 선부인께서 '아이들이 나의 뜻에 차야만 남의 뜻에 찬다.[兒子滿吾意者, 滿於人意,]'라고 말씀하신 말을 나는 잊지 못한다."라고 했다고 한다. 부군 김인백의 세계(世系)는 김인백의

35) 김구의 문집에 이 비문이 들어 있는데, 김구의 官銜과 立碑 날짜가 빠져 있다. 金構, 「曾祖妣贈貞夫人權氏墓表」, 『觀復齋遺稿』 卷2 雜著.

묘갈 후면(음기)에 자세하다고 하되, 3남 가운데 계자 김극형(金克亨)의 자손이 5대까지 번성한 사실을 자손록에 상세히 밝혔으며, 서출(庶出)이 있다는 것도 밝혔다. 사위들의 이름과 관명은 밝혔으나, 그 자식들은 적지 않았다. 김재로는 이 묘표에서 안동 권씨가 제3남을 명유(名儒)로 길러내어 그로부터 자성(子姓)이 번연(蕃衍)하고 문호(門戶)가 현혁(顯赫)하게 만든 공적을 칭송했다. 김인백과 안동 권씨가 '적덕위지(積德委祉) 수훈계경(垂訓啓慶)'했다고 하여 부부의 덕을 함께 예찬했지만, 안동 권씨가 중년 이후 과거(寡居)한 점을 밝힌 사실에 비추어 보면, 안동 권씨가 청풍김씨 가문을 융성하게 하는데 공적이 지대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고 할 수 있다. 안동 권씨가 죽은 후 오봉산 아래 청풍김씨 사패지 내에 무덤을 썼지만, 부군 김인백의 묘로부터 3리나 떨어진 곳에 음택을 썼다. 합폄(合窆)하지 않은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오늘날 세간에 전하듯, 풍수지리설에 근거했는지 모른다. 명(銘)은 4언 3구 1전운 12연으로 작성했다.

『금석집첩』·『금석속첩』 수록 청풍김씨 가문 관련 탁본 가운데는 여성 묘주의 비문 탁본으로 「복죽동묘표(卜竹洞墓表)」[『금석속첩』 秋字冊 수록]가 또 있다. 1741년 10월 추건(追建)한 비석의 탁본이다. 김유가 17세에 요절한 큰누이(1645-1661)를 위해 작성한 묘표문을 새긴 것이다.[36] 본래 수원부사로 있던 1715년(숙종 41)에 지었으나, 비석에 새긴 것은 1718년(숙종 44) 11월 이조참판으로 있던 때로, 탁본을 보면 관명이 수원부사에서 이조참판으로 바뀌어 있다. 1741년 추건할 때 해서비제(楷書碑題)는 「처자청풍김씨지묘(妻子淸風金氏之墓)」로, 소식(蘇軾)의 글씨를 집자했다. 비문의 소자(小字)는 유성현(柳誠懸) 즉 유공권(柳公權)의 글씨를 집자했다.

> 처자 김씨는 청풍인이다. 어려서는 유완(柔婉)하고 혜순(惠順)하여 부모가 몹시 사랑했다. 나이 열일곱에 어버이를 따라 강진의 임소로 갔는데, 병이 나서 죽었으니, 이는 신축년 4월 26일이다. 광주(廣州) 선영 서남쪽 서너 리 떨어진 곳의 손향(巽向, 동남쪽으로 바라봄)의 벌에 귀장(歸葬)했다. 선고(先考)의 휘는 징(澄)으로 관찰사를 지내고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선비(先妣)는 정경부인 이씨이다. 아우가 있어, 구(構)는 우리 성조(聖朝)를 보필하여, 관직이 우의정에 이르렀다.

36) 비문의 내용은 김유의 문집에도 수록되어 있다. 金楺, 「伯姊處子金氏墓表」, 『儉齋集』 卷23 墓表.

유(楺)는 지금 이조참판이다. 무(楙)는 지금 인천부사이다. [『검재집』에는 楺와 楙의 관명이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 '유(楺)는 삼사(三司)를 거쳐 지금 수원부사의 수직(守職)이다. 무(楙)는 금산군수이다.']

아아! 나의 누이로서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복조(福祚)를 누리지 못하다니, 저 하늘이 그 이유를 따져 물을 수 있을 만큼 지각이 있단 말인가? 그 묘에 나의 슬픔을 기록하며, 뒷사람들이 훼손하지 말도록 고하노라.

숭정기원후 중무술(重戊戌), 아우, 가선대부 이조판서 겸(兼) 수(守) 홍문관대제학 예문관대제학 지성균관사 동지의금부춘추관사 세자우빈객 유(楺) 찬(撰).

세(歲) 신유(辛酉) 10월 추건(追建).[37]

최근 한 경매처 블로그에 1786년 찬술된 청풍김씨 호조참의 김관(金灌)의 계배 정경부인 박씨 비갈의 오금 탁본이 소개되었다.[38] 찬자는 김재로의 아들 김치인인데, 옛 비갈의 글자가 마모되어 개건한다고 했으며, 박씨에게서 태어난 4남 2녀를 밝히고 당시까지 후손이 '삼수천인(三數千人)'에 달하여 부인의 육경(毓慶)이 심원함을 칭송했다. 김치인의 갈문에 따르면, 본래 김재로가 충주 남쪽 지장리(地藏里)에 있는 김관의 묘에 '묘기(墓記)'를 찬술하고 김재로의 형 김희로(金希魯)의 아들 김치만(金致萬)이 글씨를 쓴 것을 김재로의 아들로 충주목사로 있던 김치일(金致一)이 벌석(伐石)하여 비석을 다시 세웠다.

---

37) 處子金氏, 淸風人. 幼卽柔婉惠順, 父母絶愛之. 年十七, 隨親, 之康津治所, 疾卒. 寔辛丑四月二十六日. 歸葬廣州先塋西南數里巽向之原. 考諱澄, 觀察使, 贈領議政. 妣, 貞敬夫人李氏. 有弟構相我聖朝, 官至右議政. 楺, 今吏曹參判. 楙, 今仁川府使.[『검재집』에는 楺와 楙의 관명이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 '楺, 歷三司, 今守水原府. 楙, 金山郡守.'] 嗚呼! 以吾姊而不克壽而祚, 天可問乎? 志哀其墓, 諗後人勿毁. 崇禎紀元後重戊戌, 弟, 嘉善大夫吏曹參判 兼守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知成均館事同知義禁府春秋館事 世子右賓客 楺撰. 歲辛酉十月追建.

38) '옛날물건'의 블로그에 올라온 사진을 판독하면 비문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貞敬夫人朴氏, 戶曹左參議□贈議政府左贊成淸風金公諱灌之繼配也. 墓于忠州金谷之酉原, 舊有碣, 字可辨識字, 曰德四, 曰己酉四月, 曰于金, 蓋宣德四季己酉墓于是也. 而年世踔遠, 貫系行範, 若生歿之歲月, 無得以徵焉. 唯吾金之先, 有諱仲房, 高麗判奉常寺事, 寔夫人之舅也. 公有男, 漢城尹倪之, 江源觀察使義之, 忠淸都事僩之, 吉州牧使億之. 女適□王子敬寧君裨, 參判邊尙會, 皆夫人出也. 後裔且三數千人, 而觀察之孫, 益蕃以顯, 至于今公卿輩出, 而往往亦以道學勳業著聞, 赫然爲世大族. 嗚呼! 可以見夫人之毓慶也遠矣. 公之葬在州南地藏里, 十一世孫, 領議政忠靖公在魯, 嘗述墓記, 而其子本主牧使致一, 伐石重竪. 兄子侍直致萬書焉. 今諸孫又鳩財, 改是碣石, 用地藏之副, 而屬致一之弟, 原任領議政致仁, 識其陰. 致萬之子, 前戶曹判書大提學鍾秀書之. 主斯役者, 十三世孫前吏曹判書鍾正及致一之子槐院副正字鍾純也. 崇禎紀元後三丙午三月□日重建." 옛날물건(경남 밀양시 중앙로 80-6 가곡동) https://www.yetnal.co.kr/shop/item.php?it_id=1229654817&device=mobile 2022.6.17.10:08 검색.

이후 여러 손자들이 재물을 모아 충주 금곡(金谷)의 유원(酉原)에 쓴 박씨 묘의 갈석을 다시 세워 지장리의 묘기에 부응시키고자 했다. 그래서 김치일의 아우인 김치인이 갈석의 비음을 찬술하고 김치만의 아들 김종수(金鍾秀)가 글씨를 썼고, 13세손에 해당하는 김종정(金鍾正)과 김치일의 아들 김종순(金鍾純)이 역사(役事)를 주관했다고 한다. 18세기 후반 김재로와 그 자질들이 선대의 묘역을 정비하고 비갈을 중건했으며, 이때 여성 묘주의 묘표와 묘갈도 재건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여성 묘주의 묘표와 묘갈을 수립하는 것은 풍수지리상의 이유, 본종의 번영에 중요한 역할을 한 여성에 대한 추모 등 복합적인 이유라는 사실을, 『금석집첩』·『금석속첩』 수록 청풍김씨가 여성 묘주의 비문 탁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김재로의 아들 김치일이 벌석하여 수립한 '김관의 계배 정경부인 박씨 비갈의 오금 탁본'이 『금석집첩』·『금석속첩』에 수습되어 있었던 것인지, 애당초 산일되었던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5. 청풍김씨 찬술 묘비 탁본 및 정치적 대립 인물 비탁의 수록 실상

영, 정조 연간에 활동한 청풍김씨 김재로 가계의 인사들은 많은 묘도문자를 작성하여, 그것들이 각 개인의 문집에 수록되어 있다. 하지만 그 글을 새긴 비석의 탁본들이 『금속집첩』에는 거의 들어 있지 않다. 물론 다른 집안 인물의 지석(誌石) 탁본은, 자기 집안의 경우도 그러하지만, 『금속집첩』에 적극적으로 수록하려 하지 않았다. 광중 앞에 묻은 지석을 발굴하여 탁본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청풍김씨 가계의 묘역을 정비하거나 개장하면서 지석을 묻을 때 탁본을 제작한 일부는 『금속집첩』·『금석속첩』에 수록했다. 하지만 그 수는 극히 적다.

김간(金榦, 1646-1732)은 일생 비교적 많은 묘도문자를 작성하여, 문집 『후재집(厚齋集)』에 전하는 것도 상당히 많은 편이다. 그 가운데 김간의 5대조 김여광(金汝光), 6대조 김우증(金友曾), 형 김유(金楺)의 지문(誌文)이 들어 있다. 하지만 『금석집첩』에는 그 탁본을 수록하지 않았다. 또한 『후재집』 수록

묘도문자 18종(비갈 10종) 가운데 『금석집첩』에 탁본이 있는 경우는 홍우전(洪禹傳)의 신도비명(「嘉義大夫行司諫院大司諫洪公神道碑銘」) 1종뿐이다.[39]

김구(金構, 1649-1704)의 『관복재유고(觀復齋遺稿)』에 수록된 묘도문자는 김인백 처 안동 권씨의 「증조비 증정부인 권씨묘」 1종이다. 위에서 보았듯이 1764년 정월에 묘표를 새로 만들면서 후지(後識)로 더한 것이다. 김유(金楺, 1653-1719)의 『검재집(儉齋集)』에 수록된 묘도문자는 13편(표갈 10편)인데, 그 가운데 김계(金繼)의 묘표, 큰누나 김씨의 묘표만 『금석집첩』에 탁본이 들어 있다.[40] 김치후(金致垕, 1692-1742)의 『사촌집(沙村集)』에는 2편의 지문이 있으나, 『금석집첩』에는 탁본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41]

김종수(金鍾秀, 1728-1799)의 『몽오집(夢梧集)』에는 25편의 묘도문자가 수록되어 있다. 그 가운데 신도비와 표갈이 21편(「자표」 포함), 정효비음기(旌孝碑陰記) 1편이 있다. 『금석집첩』에는 김종수 찬술의 묘도문자를 탁본한 것이 한 편도 들어 있지 않다. 김종수의 「자표」를 탁본한 것도 없다.[42] 비주

---

39) 「處士姜公墓碣銘」[碑主:姜謙(1594-1643)], 「嘉善大夫同知敦寧府事金公墓誌銘」[碑主:金洵(1648-1721)], 「五代祖考禦侮將軍行忠佐衛大護軍府君墓誌」[誌主:金汝光(14??-1535)], 「六代祖考秉忠奮義靖國功臣通政大夫行定州牧使府君墓誌」[誌主:金友曾(14??-15??)], 「嘉善大夫吏曹參判兼守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知成均館事・同知義禁府春秋館事・世子右副賓客金公墓誌銘」[誌主:金楺(1653-1719)], 「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閔公墓碣銘」[誌主:閔泮(1439-1520)], 「處士閔公墓碣銘」[碑主:閔宇宖(1656-1714)], 「水運判官朴公墓誌」[誌主:朴泰殷(1650-1696)], 「通德郎宋公墓碣銘」[誌主:宋昱(1657-1714)], 「淑人朴氏墓誌銘」[誌主:申聖夏妻朴氏(1663-1702)], 「司導寺僉正楓崖安先生墓碣銘」[楓崖先生碑文(『楓崖集』)碑主:安敏學(1542-1601)], 「處士尹公墓碣銘」[碑主:尹齊衡(1639-1708)], 「掌令吳公墓碣銘」[碑主:吳尙(1614-1672)], 「府使李公墓碣銘」[碑主:李挺英(1655-1726)], 「掌樂院主簿張公墓誌銘」[誌主:張始顯(1647-1713)], 「尙衣院直長鄭公墓誌」[誌主:鄭馨遠(1582-1639)], 「僉知中樞遁村趙公墓碣銘」[碑主:趙門獬(1617-1700)], *「嘉義大夫行司諫院大司諫洪公神道碑銘」[碑主:洪禹傳(1663-1728). 「洪參判(洪禹傳)碑」103殷(교102金石續帖殷:無). cf.「洪禮判(洪禹傳)表」 102發(교101發:亞卿)]

40) 「高王考處士贈執義府君墓誌銘」(乙未)[誌主:金繼(1528-1565)], *「高王考處士贈執義府君墓表」(丙申)[碑主:金繼], 「亡室贈貞夫人(後又贈貞敬)李氏墓誌」(戊戌)[誌主:金楺妻李氏(1651-1670)], *「伯姊處子金氏墓表」[碑主:金澄女(1645-1661)], 「外舅金川郡守宋公墓表」(戊戌)[碑主:宋搏(1619-1682)], 「承政院左承旨柳公墓碣銘」[碑主:柳夢鼎(1527-1593)], 「外舅完山李公墓碣銘」[碑主:李鳴震(1608-1688)], 「成均生員李公墓誌銘」[誌主:李熙夏(1644-1713)], 「戶曹正郎張公墓碣銘」[碑主:張榥(1661-1708)], 「高山縣監鄭君墓表」[碑主:鄭錫祚(1673-1714)], 「光山鄭公墓表」[碑主:鄭曰壽(1631-1705)], 「林川趙公墓碣銘」[碑主:趙世養(1639-1707)], 「全州崔士遜墓碣銘」[碑主:崔敏學(1661-1711)].

41) 「朴君(瑊)墓誌銘」[誌主:朴瑊(?-17??)], 「恭人星州李氏墓誌銘」[誌主:申命鼎妻李氏(1668-1729)]

42) 「吏曹判書權公神道碑銘並序」[碑主:權爀(1694-1759)], 「金仲晦墓表」[碑主:金光默(1730-1790)], 「金伯愚墓碣銘幷序」[碑主:金尙默(1726-1779)], 「司諫院大司諫金公墓表」[碑主:金相定(1722-1788)], 「族曾祖執義公墓碣銘幷序」[碑主:金栽(1650-1712)], 「持平贈吏曹判書忠愍金公墓表」[碑主:金礒(1509-1545)], 「自表」

조돈(趙暾, 1716-1790)의 「이조판서치사조공묘표(吏曹判書致仕趙公墓表)」 탁본[無陰]이 『금속집첩』[211名(교202名:勳武/戰功/天朝碑)]에 들어 있지만 이것은 김종수 찬술의 묘표로 개건(改建)하기 이전 것이다. 김종수의 『몽촌집』에는 들어 있지 않지만, 김종수는 이윤영(李胤永)과 이화보(李和甫)의 비문도 작성했다. 그러나 그 두 비석의 탁본도 『금석집첩』에 들어 있지 않다.[43]

『금석집첩』[156養(교152養:名文/名筆/中朝人)]은 습재(習齋) 권람(權擥)의 비갈, 석주(石洲) 권필(權韠)의 비갈, 석주 권필과 부인 이씨의 합장 묘표, 동악(東岳) 이안눌(李安訥) 묘표, 동악 이안눌 신도비, 소암(踈庵) 임숙영(任叔英) 묘표(無陰), 소암 임숙영 비갈, 간이(簡易) 최립(崔岦) 묘표(無陰), 간이 최립 비갈, 봉래(蓬萊) 양사언(楊士彦) 비갈, 고산(孤山) 황기로(黃耆老) 묘표, 석봉(石峰) 한호(韓濩) 비갈 등의 탁본을 수록하여 문장가 및 명필을 우대했다. 또한 『금석집첩』[056光(교056光:相臣十二)-3]에는 학곡(鶴谷) 홍서봉(洪瑞鳳) 신도비 탁본과 지천(遲川) 최명길(崔鳴吉) 신도비의 탁본을 실었다. 백헌(白軒) 이경석(李景奭) 묘표는 표지 묵서목록에는 저록되어 있으나, 현전본에는 들어 있지 않다. 애당초 수습하지 않은 것인지, 후인이 삭제하거나 탈취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한편 『금석집첩』에서는 김재로가 성균관 재임 때 예서 문제로 비판을 했던 최석항(崔錫恒)의 비석 탁본을 찾아볼 수 없다.

『금석집첩』과 『금석속첩』은 비탁을 수록할 때 비주(묘주)의 당파, 정치적 위상 등을 상당히 고려했다.

[碑主:金鍾秀(1728-1799)], 「伯氏墓表」[碑主:金鍾厚(1721-1780)], 「從叔父古古亭府君墓誌銘幷序」[誌主:金致仁(1716-1790)], 「文孝世子誌文」[誌主:文孝世子(1782-1786)], 「高麗禮儀判書閔公墓表」[誌主:閔安富(13??-?)], 「倡義使朴公墓表」[碑主:朴敏雄(1674-1732)], 「朴三可先生(遂良)旌孝碑陰記」[碑主:朴遂良(1475-?)], 「贈司諫院大司諫楡谷朴公墓表」[碑主:朴致隆(1692-1766)], 「平安道兵馬節度使贈戶曹判書謚忠莊白公神道碑銘幷序」[碑主:白時耇(1649-1722)], 「徐堉墓誌銘並序」[誌主:徐有守(1757-1775)], 「吏曹判書宋公墓誌銘幷序」[誌主:宋載經(1718-1793)], 「工曹判書申公神道碑銘」[碑主:申應顯(1722-1797)], 「刑曹佐郎沈公墓碣銘幷序」[碑主:沈尙吉(1678-1722)], 「翊衛柳公墓碣銘並序」[碑主:柳光翼(1713-1780)], 「宗簿寺主簿贈吏曹參判柳公墓表」[碑主:柳復立(1558-1593)], 「高麗祭酒李公墓表」[碑主:李晟(1284-13??)], 「戶曹佐郎鄭公墓碣銘並序」[碑主:鄭思溫(1559-1631)], 「厚陵參奉鄭公墓表」[碑主:鄭熙運(1678-1745)], 「吏曹判書致仕趙公墓表」(新表)[碑主:趙暾(1716-1790)].

43) 「墓表」[『丹陵遺稿』 수록, 김종수 찬] 碑主:李胤永(1714-1759), 「墓碣銘」[『有心齋集』 수록, 김종수 찬] 碑主:李和甫(1714-1781).

『금석집첩』은 정치적으로 온건한 소론 사대부들의 비탁은 수록했다. 이를테면 [196染(교188染:大院君/蔭官/儒士/相臣/瘞鶴/兩堤/武臣)]에는 조문명(趙文命) 묘표를 수록했다. 그러나 김재로와 동시대 인물로 그와 정치적으로 대립했던 이광좌(李光佐, 1674-1740), 조태억(趙泰億, 1675-1728), 조관빈(趙觀彬, 1691-1757)[44]의 비탁은 수록하지 않았다. 『금석집첩』은 또한 허목(許穆, 1595-1682), 허적(許積, 1610-1680) 등 북인계 남인 인사의 비탁도 수록하지 않았다. 1755년에 김재로는 『천의소감(闡義昭鑑)』을 엮으면서 남구만(南九萬)과 유상운(柳尙運) 및 임부(林溥)와 이잠(李潛)을 역적들의 근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성토하려 했는데, 『금석집첩』[061菜(교061菜:相臣十七)-4]에 유상운(柳尙運)의 비갈 탁본은 수록했지만 남구만의 비탁, 임부와 이잠의 비탁은 어디에도 수록하지 않았다. 한편 김재로는 남구만을 옹호했고 을해옥사 이후 정시(庭試) 변서 사건에 연루된 심악(沈鍹)의 비탁은 물론, 심악의 부친 심수현(沈壽賢, 1663-1736)과 그 장남 심육(沈錥, 1685-1753)의 비탁도 수록하지 않았다. 노론에 의해 사문난적으로 비난받은 박세당(朴世堂, 1629-1703)의 비탁도 없으며, 양명학자로 지목된 정제두(鄭齊斗, 1649-1736)의 비탁도 없다. 무장 김응하(金應河)의 경우 『금석집첩』[039爲(교039爲:死節)]에 묘표 비탁을 수록했으나, 비양의 해서 비제만 탁본한 것[無陰]이다. 1683년(숙종 9) 송시열이 「요동백김응하장군묘비(遼東伯金應河將軍廟碑)」의 비문을 지어 박태유(朴泰維)가 글씨를 쓰고 김수항(金壽恒)이 비석에 전액을 올렸으나, 『금석집첩』은 이 묘비(廟碑) 탁본을 수록하지 않았다.

6. 결론

『금석집첩』·『금석속첩』은 왕가 14책, 정경(正卿) 25책, 아경(亞卿) 10책, 상신(相臣) 23책, 문과 당상관 16책, 음관(蔭官) 6책, 선현(先賢) 7책, 학문(學問) 7책, 무장(무신) 5책이 중심을 이룬다. 왕비·세자·비빈·부마 등 왕가

44) 조관빈은 노론 4대신의 한 사람인 趙泰采의 아들로, 부친의 신원하고 노론의 당론을 지켰다. 그런데 앞서 보았듯이 1753년에 육상궁 죽책문 제진을 거부하자 김재로가 국문을 청한 일이 있다.

혹은 국변인(國邊人)의 비문과 유학을 공부하여 벼슬을 살았던 인물의 비문이 많다. 봉건 이념에 따라 열부(烈婦)의 분류목을 두었고, 지역별 안배를 고려하여 호남인, 영남인, 관서인, 북관인/서관인의 부목을 두었다. 전조인(前朝人)의 비지문이나 전조의 유적비도 있지만, 대부분 조선시대에 개립(改立)되거나 창립(創立)된 것들이다.

이러한 분류 방식을 보면 『금석집첩』과 『금석속첩』은 조선 왕조의 국체(國體)를 반영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금석문을 수집한 주체는 누구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금석록』(목록)이 김재로 찬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김재로의 발의로 시작된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금석록』(목록)은 김재로 사후에 이루어진 것이며, 『금석속첩』에는 김재로의 묘비 탁본이 들어 있으므로 김재로가 마지막 편찬까지 간여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부록 표1〉에서 제시한 『금석집첩』·『금석속첩』의 '본종'과 '방친' 비탁들을 검토하면, 당초 김재로가 충주 금곡의 선산과 경기도 오봉산의 방친 묘역에 비석들을 자질과 함께 개립하거나 창립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처음에는 김재로의 형 김희로(金希魯)의 아들 김치만(金致萬), 김재로의 아들로 충주목사로 있던 김치일(金致一)이 도왔다. 이때 청풍김씨 본종·방친의 여성묘주 비석도 세우고 그 비탁을 수집했다.

김재로 등은 이 무렵에 왕조의 국체를 파악할 수 있는 비탁들을 1차적으로 수집한 듯하다. 유한준(俞漢雋)의 기록에 나타나 있듯이 18세기 초에는 국가나 개인이 전국적으로 비탁들을 수집하고 있었다. 이것은 국가적인 인물록의 편성, 『문헌비고』의 국고 정리 사업 등과 관련이 있었을 것이다. 김재로는 그 비탁의 일부를 구했거나, 당시의 풍조에 고무되어 독자적으로 비탁을 모았던 듯하다. 하지만 청풍김씨 문인 찬술의 비탁을 적극적으로 수집하려 하지는 않았다. 현실적으로 탁본을 모두 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거나, 본종의 범위를 한정했기 때문이었는지 모른다.

김치일이 먼저 죽고 김재로도 타계한 이후에 『금석속첩』에 김재로 묘비가 수록되었다. 이 묘비는 김치만의 아들 김종후가 작성한 행장을 근거로 남유용이 찬술한 것인데, 이후 김종후는 김재로의 지문을 다시 찬술하게 된다. 비문과

지문을 비교하면, 김종후가 작성한 지문이 김재로의 일생 사업과 업적을 더욱 분명하게 부각시키기 위해 부심했다는 사실을 확연하게 알 수 있다. 또한 김재로 지문의 탁본을 수습하지 않은 것을 보면, 김재로 사후 『금석집첩』·『금석속첩』의 편집자들은 신각(新刻) 지문의 탁본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 같다.

김재로의 사후, 김재로의 아들 김치인(金致仁), 김치만의 아들 김종후(金鍾厚), 김치후(金致垕)의 아들 김종정(金鍾正), 김종후의 아우 김종수(金鍾秀) 등이 선대의 묘역에 세울 비문의 전본(鐫本)을 마련하고 벌석(伐石)하여 입비(立碑)했다. 이들이 『금석집첩』과 『금석속첩』의 2차 정리에 힘을 쏟았을 가능성이 높다. 『금석속첩』 往字冊[『金石錄』 秋字冊]에는 1802년에 사망한 김종순(金鍾純)의 묘표 탁본이 실려 있어, 그 무렵까지 비탁 수집이 계속되었으리라 추정된다. 김종순은 생부가 김치공(金致恭)이지만 김치일(金致一)의 후사(後嗣)가 되었던 인물이다.

『금석집첩』·『금석속첩』에서는 김재로가 성균관 재임 때 예서(禮書) 문제로 비판을 했던 최석항(崔錫恒)의 비탁을 찾아볼 수 없다. 『금석집첩』은 정치적으로 온건한 소론 사대부들의 비탁은 수록했다. 그러나 김재로와 동시대 인물로 그와 정치적으로 대립했던 이광좌(李光佐)나 조태억(趙泰億)의 비탁은 수록하지 않았다. 또한 허목(許穆)·허적(許積) 등 북인계 남인의 비탁도 수록하지 않았다. 1755년에 김재로는 『천의소감(闡義昭鑑)』을 엮으면서 역적의 근원으로 남구만(南九萬)과 유상운(柳尙運)을 지목했는데, 유상운의 비갈 탁본은 수록했으나 남구만의 비탁은 수록하지 않았다. 노론에 의해 사문난적으로 비난받은 박세당(朴世堂), 양명학자로 지목된 정제두(鄭齊斗)의 비탁도 없다. 무장 김응하(金應河)의 경우 무음(無陰)의 묘표 비탁을 수록했을 뿐, 1683년 송시열이 찬술한 「요동백김응하장군묘비(遼東伯金應河將軍廟碑)」의 비문 탁본은 수록하지 않았다.

『금석집첩』·『금석속첩』의 비탁 수집은 묘주(비주)의 신분과 지역에 대해 개방적이고 망라적인 태도를 취한 듯 여겨진다고도 할 수 있지만, 정치적 편향성도 분명히 드러난다. 그 이중성에 대해서는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김재로의 재조일기(在朝日記)인 『본말록(本末錄)』과 초년부터 몰년까지의 연보형 일기인 『청사일기(淸沙日記)』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하고 관련 자료와 대조하여 비탁 수집의 동기가 될 사항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부록 1】

『금석집첩』·『금석속첩』 수록 김재로 일가 묘비문과 별도 문헌 소재 관련 비지문 현황

	고려대학교 『금석록』 (목록)	『금석집첩』·『금석속첩』 묵서 목록	묘주(비주)	찬자, 서자, 전액자, 건립일 등
宿 (先世)	十一代祖 戶曹參議 府君表	十一代祖 戶曹參議府君表	金灌 (?-1417)	楷書碑題「戶曹參議贈議政府左贊成金公諱灌墓」 [崇禎紀元後三庚午今上二十六年(英祖26年 :1750)十月立 前面集韓濩字, 陰記後孫金致萬書]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 지장리 산 57-1
	七代祖淸平君府君表	七代祖淸平君府君墓表	金友曾	楷書碑題「朝鮮秉忠奮義靖國功臣通政大夫定州牧使贈兵曹判書淸平君金公友曾之墓 贈貞夫人南陽洪氏祔左」[崇禎再丙寅(英祖22年:1746)十月立. 七代孫金在魯述, 外七代孫尹得和書] 경기도 의왕시 왕곡동 산 4-1 (백운산 아래 왕림마을. 중종반정 후 사패지)
				cf.金榦『厚齋先生集』卷42「六代祖考 秉忠奮義靖國功臣通政大夫行定州牧使府君墓誌」 cf.「有明朝鮮秉忠奮義靖國功臣 通政大夫行定州牧使 安州鎭管兵馬同僉節制使 贈資憲大夫兵曹判書兼 知義禁府事訓練院事 淸平君金公神道碑銘幷序」[1764年立. 七大孫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世子師致仕奉朝賀尙魯謹撰/八代孫 原任資憲大夫吏曹判書兼知經筵春秋館事同知成均館事五衛都摠府都摠管致仁謹書/九代孫通政大夫承政院左副承旨兼經筵參贊官春秋館修撰館鍾正謹篆] ▲『始興金石總覽』「金友曾神道碑」
	生邊七代祖處事府君表	生邊七代祖處事府君墓表	金潤	楷書碑題「處士金公諱潤墓 配晉州河氏祔右」 [時崇禎再丙寅(英祖22年:1746)十月. 孫金在魯識. 金致萬書. 前面集韓濩字]
	五代祖贈執義府君碣	五代祖 贈執義府君墓碣	金繼 (1528-1565)	楷書碑題「有明朝鮮處士 贈司憲府執義金公墓碣銘幷序」[朴世采撰, 宋時烈書, 閔維重篆, 崇禎辛酉(肅宗7年:1681)九月日立] 「處士贈執義金公墓碣銘」(丁巳六月三日) [朴世采『南溪集』]

宿 (先世)	五代祖 贈執義府君碣	五代祖 贈執義府君墓碣	金繼 (1528-1565)	cf.「處士 贈執義金繼之墓 淑人順興安氏祔左」 (경기도 의왕시 왕곡동 산 4-1);「處士金公墓誌」 (尹鑴『白湖集』);「高王考處士贈執義府君墓誌銘」 (乙未)[金楺『儉齋集』];「高王考處士贈執義府君 墓表」(丙申)[金楺『儉齋集』]
	高祖贈吏判 府君碣	高祖贈吏判府君 墓碣	金仁伯 (1561-1617)	楷書碑題「有明朝鮮國資憲大夫吏曹判書 兼知義禁府事五衛都摠府都摠管金公墓碣銘幷序」 [李宜顯撰. 外玄孫尹得和書. 玄孫金在魯篆. 崇禎紀元後重壬戌(英祖18年:1742)三月建]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171(오봉산하)
				cf.「贈吏曹判書金公墓碣銘 幷序」(李宜顯『陶菴集』) cf. 배위 안동권씨는 합장 않음. 안동권씨묘갈 참조
	曾王考沙川 先生碑	曾祖沙川先生 墓碑	金克亨 (1605-1663)	楷書碑題「有明朝鮮國 贈崇政大夫議政府左贊成 兼判義禁府事 世子貳師五衛都摠府都摠管 行通訓大夫工曹正郎沙川先生金公神道碑銘幷序」 朴世采撰. 申琓篆
				cf.忠州可金面鳳凰里金克亨神道碑. 篆額「贈左贊成沙川先生金公神道碑銘」 [楷書陰記 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左議政兼領 經筵事監春秋館事世子府朴世采撰, 大匡輔國 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 春秋館觀象監事世子師平川君申玩篆] cf.「工曹正郎贈戶曹參判金公墓碣銘」 (七月十九日)[朴世采『南溪集』]
		목록 없음 (碑陰記)	金克亨	男金洵書. 崇禎紀元後七十八年乙酉 (肅宗31年: 1705) 12月日立 庚午(英祖26年: 1750) 三月改立. 金在魯述. 金致仁書.
列 (祖考 以下四世)	王考觀察公 碑表	先祖考觀察府君 墓表	金澄 (1623-1676)	楷書碑題「全羅道觀察使贈領議政坎止堂金公 諱澄之墓 貞敬夫人咸平李氏祔左」 [崇禎紀元後戊子(仁祖26年:1648)五月日立]

列 (祖考 以下四世)	先祖考觀察 府君墓碑	先祖考觀察府君 墓碑	金澄	楷書碑題「有明朝鮮國通政大夫守全羅道觀察使 兼兵馬水軍節度使巡察使全州府尹 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 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世子師金公神道碑銘 幷序」[權尙夏撰, 李健命書. 閔鎭遠篆. 崇禎紀元 後九十一年戊戌(肅宗44年:1718)四月日立] 경기도 시흥시 의왕읍;「觀察使贈領議政金公(澄) 神道碑銘 幷序」[權尙夏『寒水齋集』]
				cf.「全羅道觀察使金公墓誌銘」[朴世采『南溪集』]
	先考忠憲公 碑表	先考忠憲公府君 墓碑	金構 (1649-1704)	楷書碑題「有明朝鮮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 右議政兼領經筵事監春秋館事 贈諡忠憲公金公 神道碑銘幷序」[李宜顯撰. 女婿徐命均書. 俞拓基篆.崇禎紀元後再癸亥(英祖19年: 1743) 十月立] 서울 송파구 방이동 88-3 몽촌토성내 [구:경기도 광주군 중대면 이리 몽촌];「右議政 忠憲金公神道碑銘 幷序」[李宜顯『陶谷集』]
		先考忠憲公府君 墓表	金構	楷書碑題「右議政忠憲公金公諱構墓 貞敬夫人 全州李氏祔左」[上之十九年癸亥(英祖19年: 1743 九月立 前面集韓濩字, 陰記 男金在魯述. 孫金致萬書]
	伯氏 參判公表	伯氏參判府君 墓表	金希魯 (1673-1753)	楷書碑題「有明朝鮮戶曹參判金公希魯之墓 貞夫人李氏祔左」[南有容撰. 洪鳳祚書. 外弟尹得和書. 崇禎百二十九年丙子(英祖32年: 1756)十月日立] 경기도 의왕시 왕곡동 산 9-3
				cf.「戶曹參判金公墓誌銘 並序」 (兪拓基『知守齋集』);「戶曹參判金公墓表」 (南有容『雷淵集』) cf.(金希魯妻李氏) 「季妹貞夫人墓誌」[李宜顯『陶谷集』]
	亡姪侍直表	亡姪侍直墓表	金致萬 (1697-1753)	楷書碑題「高隱堂金公致萬之墓」[閔遇洙題. 崇禎三丙子(英祖32年:1756)十月日立]
				「金會一墓表」[閔遇洙『貞菴集』]
	題格浦壁上	목록 없음	格浦壁	乙亥(肅宗21年:1695)暮春 △梅丈金構
				「題格浦鎭壁上」(乙亥)[金構『觀復齋遺稿』]

張 (儉齋碑 /胤相)	文敬公 儉齋先生碑	文敬公 儉齋先生碑	金楹 (1653-1719)	楷書碑題「有明朝鮮國嘉善大夫吏曹參判 兼守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知成均館事 同知義禁府春秋館事 世子右副賓客 贈崇政大夫 議政府左贊成兼判義禁府事知經筵事 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知春秋館成均館事 五衛都摠府都摠管諡文敬公儉齋金先生神道碑銘 幷序」[李觀命撰. 甥姪尹得和書. 俞拓基篆. 崇禎 紀元後百十七年甲子(英祖20年:1744)五月建] 경기도 의왕시 왕곡동 산9-3(김인백 묘 능선아래)
				「大提學金公神道碑銘」[李觀命『屛山集』]
				cf.「嘉善大夫吏曹參判兼守弘文館大提學 藝文館大提學知成均館事同知義禁府春秋館事 世子右副賓客金公墓誌銘」[金榦『厚齋集』]
	文敬公 儉齋先生表	文敬公 儉齋先生墓表	金楹	楷書碑題「文敬公儉齋金先生諱楹墓 贈貞敬夫人 全州李氏祔右 貞敬夫人礪山宋氏祔左」 [陰記:男金若魯述. 金尙魯書. 上之二十九年 癸酉(英祖29年:1753)二月追刻]
	堂從叔左相表	堂從叔左相墓表	金若魯 (1694-1753)	楷書碑題「鮮議政府左議政贈諡忠正晩休金公 諱若魯墓 贈貞敬夫人延安李氏祔左」 [金在魯撰. 崇禎紀元後三乙亥(英祖31年:1755) 十月日立. 前面集韓濩字, 陰記集韓濩字] 묘는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산19번지에서 경기 도 의왕시 왕곡동 산9-3으로 이장 ; 이충구 집, 『과천탁본자료집』, 과천문화원, 2001.
				「金若魯妻李氏(1694-1728)貞夫人李氏墓誌銘」 [李天輔『晉菴集』] 전배 묘지명은 전하지 않음
寒 (傍親)	伯從高祖母 閔氏表	伯從高祖母閔氏 墓表	金忠伯 (1554-1613)	楷書碑題「贈戶曹參議金公忠伯 配贈淑夫人 驪興閔氏之墓」[崇禎紀元後再丙寅(英祖22年: 1746)三月日立. 前面集韓濩字. 陰記玄孫金在魯述. 五代孫金致萬書] 묘비 방부원수형
				「贈參議金公忠伯之墓」
				cf.「贈戶曹參議金公墓碣銘 幷序」 [宋時烈『宋子大全』];「從六代祖贈參議府君墓誌銘 幷序」[金鍾厚『本庵集』]

寒 (傍親)	伯從高祖母 閔氏表	伯從高祖母閔氏 墓表	金忠伯 (1554-1613)	[驪興閔氏 묘표는 贈戶曹參議金公忠伯 配贈淑夫人驪興閔氏之墓'. 경기도 의왕시 왕곡로 323 왕곡동 왕림 웃마을(백운사 입구) 청풍김씨 묘역에 건립. 청주 탑연리에 장사지냈다가 후에 합장할 때 옮겨온 것으로 김재로가 음기를 짓고, 김치만이 썼다.
	仲從高祖表	仲從高祖贈執義 公墓表	金孝伯 (1557-1619)	楷書碑題「贈執義金公孝伯之墓 贈淑夫人 瑞山柳氏祔左」[從玄孫金在魯撰. 洪鳳祚書. 崇禎紀元百二十四年辛未(英祖27年:1751) 五月日立 前面集韓濩字]
	伯從曾祖表	伯從曾祖墓表	金益礪	楷書碑題「淸風金公益礪之墓」[後記:從曾孫金尙魯. 崇禎紀元後三壬申(英祖28年:1752) 五月立]
	仲從曾祖表	仲從曾祖墓表	金克孚	楷書碑題「處士金公克孚墓 元配文化柳氏祔 后配咸平李氏祔」[從曾孫金尙魯述. 崇禎紀元後三壬申(英祖28年:1752)五月立. 前面集韓濩字. 陰記集柳權字]
	從祖同敦寧 公表	從祖同敦寧公墓 表	金洵 (1648-1721)	楷書碑題「贈貞夫人全州李氏祔左 朝鮮嘉善大夫 同知敦寧府事金公諱洵之墓」[孫金鳴魯書. 後記:從孫金在魯述幷書. 崇禎紀元後再壬戌 (英祖18年:1742)八月男金枋立石]
				cf.「嘉善大夫同知敦寧府事金公墓誌銘」[金榦『 厚齋集』]
	熙川公友孟 (忠州遠代傍 親墓表一)	忠州遠代傍親墓 表四・表一	金友孟 (1469-1512)	楷書碑題「□□□夫行熙川郡守公之墓 全義李氏 附葬」[隆慶二年(宣祖元年戊辰:1568) 二月二十八日孫金士元立石]
	承仕郎公汝 明(忠州遠代 傍親墓表二)	忠州遠代傍親墓 表四・表二	金汝明	楷書碑題「承仕郎金公之墓 端人南原梁氏附葬」[男金士元立石]
	司猛公欣孫 (忠州遠代傍 親四人表 三)	忠州遠代傍親墓 表四・表三	金欣孫 (1461-1515)	楷書碑題「禦侮將軍行忠佐衛司猛金公之墓」 [正德十一年丙子(中宗11年:1516)歲四月日立]
	贈參議公蘭 龝(忠州遠代 傍親四人表四)	忠州遠代傍親墓 表四・表四	金蘭龝	楷書碑題「贈通政大夫工曹參議金公之墓 淑夫人荳原吳氏之墓」[崇禎四年(仁祖9年辛未: 1631)十二月初二日立]

寒 (傍親)	再從茂朱表	再從弟茂朱府使君墓表	金述魯 (1703-1757)	楷書碑題「有明朝鮮通訓大夫行茂朱府使金公墓碣銘幷序][宋明欽撰, 再從姪金致仁篆. 男金致信書. 崇禎三己卯(英祖35年:1759)七月日立]
				「茂朱府使金公墓碣銘 幷序」[宋明欽『櫟泉集』]
	從姪進士表	堂姪進士墓表	金致永	楷書碑題「朝鮮進士金致永之墓 配恭人淸州韓氏祔左」[韓翼謇識. 崇禎紀元後三壬申(英祖28年:1752)十月立. 前面集韓濩字 陰記集柳櫂字]
				경기도 의왕시 왕곡동 산 9-3
來(續)	金谷墓表	金谷墓表	金灌繼配 朴氏	「戶曹參議贈議政府左贊成金公灌配貞敬夫人朴氏之墓」(崇政紀元後三丙午三月日重建)[原任領議政金致仁陰記, 前吏曹判書大提學 金鍾秀書.]
				槐山郡佛頂面芝莊里細谷子坐 [충북 괴산군 불정면 문무로 세곡길 56(지장리)]'
	金谷舊表	金谷舊表	金灌配 朴氏	"景泰二年辛未四月十七日于" "靖大夫 同知中樞院事金義之" "葬于忠州近南村公山"
				重建碑에 "墓于忠州金谷之西原. 舊有碣, 字可辨識者, 日德四, 日己酉四月, 日于金蓋宣德四季己酉葬于是也."
	公山墓表(無陰)	公山墓表	金義之	楷書碑題殘字"'貞夫人' 金義之表"
	天龍墓表(無陰)	天龍墓表(無陰)	金理	楷書碑題「果毅將軍行忠佐衛大護軍金公理之墓」
				『금석록』과 『금석집첩』에 '無陰'이라 했으나, 後識 일부가 있음.
	黃金谷墓表	黃金谷墓表	淑人宜寧南氏	楷書碑題「淑人宜寧南氏之墓」
	方夏洞墓表(無陰)	方憂洞墓表(無陰)	金克誠 (1474-1540)	楷書碑題「通訓大夫行司宰監僉正金克誠之墓」
	淸平君府君墓碑	淸平君府墓碑[新碑, 金在魯撰述]	金友曾	篆額「朝鮮靖國功臣定州牧使贈兵曹判書淸平君金公神道碑銘」 楷書碑題「有明朝鮮秉忠奮義 靖國功臣通政大夫行定州牧使安州鎭管兵馬 同僉節制使贈資憲大夫兵曹判書兼知義禁府 訓鍊院事淸平君金公神道碑銘幷序」 [七世孫金尙魯撰, 八世孫金致仁書, 九世孫金鍾正篆. 崇禎紀元後三甲申(1764)十二月立]
				경기도 의왕시 왕곡동 산 4-1

來(續)	淸平君府君舊表	淸平君府舊表(無陰)	金友曾	楷書碑題「朝鮮秉忠奮義靖國功臣通政大夫 定州牧使贈兵曹判書淸平君金公友曾之墓 贈貞夫人南陽洪氏祔左」
	大護軍府君墓表(無陰)	鵝湖處士府君墓表	金潤	楷書碑題「處士金潤之墓 晉州河氏祔右」 時崇禎再丙寅(英祖22年:1746) 十月. 孫金在魯識. 金致萬書. 前面集韓濩字
	鵝嶺處事府君墓舊表(無陰)	大護軍府君墓表(無陰)	金汝光	楷書碑題「大護軍金汝光之墓 淑人延安金氏祔左」 [崇禎紀元後重壬戌(1742)五月改建]
				경기도 의왕시 왕곡동 산 4-1
	虞侯府君墓表(無陰)	虞候府君墓表(無陰)	金崇義(1507-1569)	楷書碑題「虞候金公崇義之墓 淑人晉州鄭氏祔左」
				cf.「本生八代祖虞候府君墓誌」庚寅) [金鍾厚『本庵集』];「本生五代祖考禦侮將軍 行忠淸道水軍虞候府君行狀」[金榦『厚齋集』].
暑(續)	贈執義府君墓表	贈執義府君墓表	金繼(1528-1565)	楷書碑題「淑人順興安氏祔左 處士贈執義金繼之墓」 [黃海道觀察使金楺撰幷書. 崇禎後八十九年丙申(1716)五月日立]
				「高王考處士贈執義府君墓表」(丙申)[金繼『儉齋集』]
	贈判書府君墓舊表	贈判書府君舊墓表	金仁伯(1561-1617)	楷書碑題「贈左承旨金仁伯之墓(後又贈吏曺判書)
	五峰墓表	五峰墓表	金仁伯妻 安東權氏 (權大勳女)	楷書碑題「贈吏曺判書金仁伯妻 贈貞夫人安東權氏之墓」
				cf.「曾祖妣贈貞夫人權氏墓表」 [金構『觀復齋遺稿』][改墓前石, 略敍于後 …構謹書, 甲申(1764)正月]]
	五峰安東權氏墓碣	五峰墓碣	金仁伯妻 安東權氏	篆額「贈貞夫人安東權氏墓碣」 楷書碑題 「有明朝鮮贈貞夫人安東權氏墓碣銘幷序」 [玄孫金在魯撰, 玄孫金若魯篆, 玄孫金尙魯書. 崇禎紀元後三癸未(1763)四月立]
	綾巖墓表	綾巖墓表(無陰)	金克亨(1605-1663)	楷書碑題「工曹正郎左贊成金克亨之墓 贈貞敬夫人 光州鄭氏祔右 贈貞敬夫人靑松沈氏祔左」
	夢村床石刻字	夢村床石刻字		『금석속첩』 목록에 있으나 탁본 없음.
	坎止堂懸板	坎止堂懸板		『금석속첩』 목록에 있으나 탁본 없음. 金澄(1623-1676), 元會,坎止堂.
	沙川墓門碑	沙川墓門碑		『금석속첩』 목록에 있으나 탁본 없음.

往(續)	蘇山墓表	忠靖淸沙金公在魯墓表	金在魯(1682-1759)	楷書碑題「有明朝鮮領議政奉朝賀謚忠靖淸沙金公在魯墓 貞敬夫人靑松沈氏祔左」[南有容撰, 徐懋修書. 崇禎紀元後三辛巳(1761)十月日立] 인천 남동구 운연동 산 64-13번지. 「議政府領議政致仕贈謚忠靖金公墓表」[南有容『雷淵集』]
				cf.「仲祖領議政忠靖公墓誌銘 幷序」(辛卯)[金鍾厚『本庵集』]
	蘇山下墓表	掌樂院正金公致一墓表	金致一(1700-1759)	前面楷書碑題(集韓濩字)「掌樂院正金公致一之墓 淑人豐山洪氏祔左」[金鍾厚撰, 金致仁書. 崇禎三辛巳(1761)十月日立]
				cf.「伯從叔父院正公墓表」(辛巳)[金鍾厚『本庵集』];「掌樂院正金公墓誌銘幷序」[南有容『雷淵集』]」 *풍산홍씨묘지[洪樂命撰](金致仁後識에 언급)
		掌樂院正金公致一墓表後識	金致一(1700-1759)	金致仁識[“辛丑(1781)洪淑人卒, 閏五月十八日奉遷公葬, 以淑人祔左.”]
	冷泉(金若魯)表	左議政忠正金公若魯墓表及貞敬夫人延安李氏祔左	金若魯(1694-1753)	楷書碑題(集蘇軾字)「朝鮮左議政忠正金公若魯墓 貞敬夫人延安李氏祔左」[崇禎三戊子仲春, 金致恭撰, 金鍾健書]
				cf.「金若魯妻李氏(1694-1728) 貞夫人李氏墓誌銘」[李天輔『晉菴集』]
	冷泉魂石識	『금석속첩』 목록에 없음	金若魯	장지 京畿道 果川市 葛峴洞 산19번지.
『金錦集帖』往(續)/『金石錄』秋(續)	蘇阡新表	金公鍾純墓表及安人靑松院沈氏祔左	金鍾純(1750-1802)	八分碑題「承文正字金公鍾純墓 安人靑松沈氏祔左」(無陰)
	兪漢俊妻金氏誌	『금석속첩』 목록에 없음	金鍾厚女兪漢俊前配	楷書蓋題「嗚呼朝鮮杞溪俞漢俊妻孺人淸風金氏之墓」 誌石碑題「朝鮮孺人淸風金氏墓誌銘幷序」[崇禎一百六十六年癸丑(1793)孟冬鑱埋]
				cf. 俞漢俊이 문헌에 따라 兪漢宰로 나옴.
秋(續)	金溝公墓表(無陰)	金溝公墓表(無陰)	金琇	楷書碑題「通訓大夫行金溝縣令金琇之墓」
	萬戶公墓表(無陰)	萬戶公墓表(無陰)	金紀	楷書碑題「配淑人安東金氏祔左 保功將軍行三陟浦鎭管大浦水軍萬戶金公諱紀之墓」

秋(續)	贈參議公墓碣	贈參議公墓碣	金繼	篆額「孝子贈參議金公墓碣銘」 楷書碑題 「有明朝鮮孝子贈通政大夫戶曹參議金公墓碣銘幷序」 [宋時烈撰][崇禎紀元後三癸丑(1793)九月立. 書集顔眞卿字, 篆集李陽氷字]
				cf.「贈戶曹參議金公墓碣銘幷序」 [宋時烈『宋子大全』]
	厚齋公墓表 (無陰)	厚齋公墓表 (無陰).	金榦 (1646-1732)	楷書碑題「右參贊兼贊善贈領議政文敬公 厚齋金先生榦之墓 贈貞敬夫人陰城朴氏祔左」 [崇禎紀元後三丁酉(1777)立]
				cf.「厚齋先生誌文」[申暻『直菴集』]
	卜竹洞墓表	卜竹洞墓表	金棨姉 (1645-1661)	楷書碑題「妻子淸風金氏之墓」[金棨撰, 歲辛酉 (1741)十月追建][大字集蘇子瞻書, 小字集柳誠懸(柳公權)書]
				「伯妨處子金氏墓表」[金棨『儉齋集』]
	白川公墓碣	白川公墓碣	金枋 (1683-1744)	篆額「白川郡守贈吏曹參議金公墓碣銘」 楷書碑題「有明朝鮮國通訓大夫行白川郡守 贈通政大夫吏曹參議金公墓碣銘幷序」(朴弼周撰, 鄭宗篆, 集柳公權書) 金鍾元後識, 崇禎紀元後三壬寅(1782)十一月立.
				cf.朴弼周『黎湖集』 미수록 cf.홍대용의 어머니 청풍 김씨는 金枋의 딸
	寶成公墓表	寶成公墓表	金樞 (1649-1721)	全面楷書碑題(集石峯韓濩筆)「朝鮮贈戶曹參判 行寶城郡守金公樞墓 貞夫人平壤趙氏祔右」 [三從姪金尙魯撰, 尹鳳五書. 崇禎紀元後三辛巳 (1761)三月立]
	監司公墓表	監司公墓表	金致臯 (1691-1742)	前面楷書碑題(集韓濩字)「觀察使贈左贊成 金公致臯墓 贈貞敬夫人完山李氏祔左 貞敬夫人 密陽朴氏祔右」[男金鍾正撰, 後面集顔眞卿字
				cf. [觀察使金公(致臯)神道碑銘」[尹鳳九『屛溪集』]; 「先府君墓表陰記」[金鍾正『雲溪漫稿』]
	淵淵墓表	再從叔淵淵墓表	金若淵 (1750-1774)	楷書碑題「淸風金若淵之墓 達城徐氏 南陽洪氏祔左」[崇禎三庚子(1780)六月立]
				cf.「從子墓誌銘幷序」(甲午)[金鍾厚『本庵集』]; 전배 서씨, 후배 홍씨를 위한 애도문 집성 『甲午哀文』

收(續)	雙山判書府君墓表(無陰)	雙山判書府君墓表	金取魯(1682-1740)	楷書碑題「朝鮮崇祿大夫行吏曹判書諡○○金公諱取魯墓 貞敬夫人韓山李氏祔左 貞敬夫人淸州鄭氏祔前左 貞敬夫人南陽洪氏祔前右」 묘는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 24-27에 막내동생 김상로의 묘와 함께 있다가 경기도 의왕시 왕곡동 산9-3로 이장.
				cf.「行吏曹判書金公諡狀」[徐宗伋『退軒遺稿』]
	碣山墓表	碣山府從祖墓表	金必魯(1697-1714) 金構側室子	楷書碑題「淸風金君必魯之墓 慶州李氏祔左」 [崇禎三庚戌(1790)十月立. 金鍾厚撰, 金鍾秀書] "金必魯汝質, 右議政忠憲公諱構之側室子也." 장지는 廣州白雲山下.
				cf.「庶從祖墓誌銘幷序」(癸巳)[金鍾厚『本庵集』]
	鞍峴墓表	鞍峴墓表	金致仁(1716-1790)	楷書碑題「領議政金公致仁之墓 贈貞敬夫人完山李氏祔右 貞敬夫人達城徐氏祔左」 [吏曹判書趙曮(1716-1790)識幷書. 崇禎紀元後三庚戌(정조14=1790)五月二十日立] 전면 글씨는 김치인의 형 金致一의 아들 金鍾純(1750-1802)이 썼다고 전한다.
				cf.「從叔父古古亭府君墓誌銘幷序」 [金鍾秀『夢梧集』] 誌文은 종형 金致萬의 아들 金鍾秀가 찬술했다고 전함.
	龜山墓表	龜山墓表	金致彦(1718-1745)	楷書碑題「通德郎金公致彦之墓 恭人驪興閔氏祔左 恭人平山申氏祔右」[金鍾秀撰] [金鍾純後識. 崇禎紀元後三乙卯(1795) 十月十二日立] 장지 廣州鬼川陽井.
	粉土洞墓表	粉土洞墓表	金致儉(1720-1733)	楷書碑題「淸風金致儉之墓」(父金若魯撰. 乙丑五月立) 장지 廣州治西白雲山下

【부록 2】 김재로 가계(본종) 간략표와 비탁(碑拓) 현존 여부

시조 金大猷 고려 문하시중, 청원부원군 [碑拓 無]
2세 金仁祐 시랑 [碑拓 無]
3세 金鉉 감문위대호군 [碑拓 無]

4세 金昌祚 문하시중 [碑拓 無]
5세 金仲房 판봉상시사 [碑拓 無]
6세 金灌 호조참의, 증 찬성 *[舊表, 信表]
7세 金儀之 한성부윤 강원관찰사 *[墓表]
8세 金理 이천부사 *[墓表]
9세 金克誠 사재감첨정 *[墓表]
배위 의령남씨, 소윤 南尙明 따님 [碑拓 無](남상평 비탁 무)
10세 金友顔 [碑拓 無]
10세 金友思 [碑拓 無]
10세 金友孟 희천군수 *[墓表]
10세 金友曾 淸平君 증 병조판서 청풍김씨 의왕 입향조 *[神道碑]
배위 증 정부인 남양홍씨, 참판 洪利老 따님 [碑拓 無](홍이로 비탁 무)
11세 金汝光 대호군 *[表]
12세 金繼 처사 증 집의, 생부 우후 金崇義 *[墓表][金崇義墓表]
배위 숙인 순흥안씨, 사직 安光沃 따님 (안광의 비탁 무)
13세 金忠伯 증 호조참의 *[伯從高(金忠伯)祖母閔氏表]
13세 金孝伯 증 사헌부집의 *[仲從高祖(金孝伯)表]
13세 金仁伯 *[金谷贈判書府君舊表] *[安東權氏表] *[五峰安東權氏墓碣]
14세 金克亨 공조정랑 *[墓表]
15세 金澄 坎止堂 전라도관찰사 동부승지 *[墓表, 神道碑]
16세 金構 우의정 忠憲公 *[墓表, 神道碑]
16세 金棨 儉齋 대제학 증의정부좌찬성 文敬公 *[墓表, 神道碑]
17세 金僖魯 [碑拓 無]
17세 金在魯 영의정 *[墓表]
17세 金取魯 *[墓表]
17세 金若魯 좌의정 *[墓表]
17세 金尙魯 영의정 [碑拓 無]
18세 金致萬 *[墓表]
18세 金致仁 영의정 *[墓表]
19세 金鍾秀 좌의정 [碑拓 無] [兪漢俊妻金氏(金鍾秀女)誌]
19세 金鍾彦 [碑拓 無]
19세 金鍾純 *[墓表]

【부록 3】

「曾祖妣贈貞夫人權氏墓表]과 「贈貞夫人安東權氏墓碣」

『金石續帖』 暑字冊[觀復齋遺稿卷之二 雜著 「曾祖妣贈貞夫人權氏墓表」]
贈吏曹判書金公諱仁伯之配, 贈貞夫人安東權氏, 縣令贈吏曹判書大勳之女, 府使鎔之孫, 贊成吳謙之外孫. 自幼孝友慈惠, 長於外家而不喜綺華. 及歸, 婦道益謹, 事親奉祭, 曲盡誠禮, 敎子御下, 恩而有制, 宗族以爲儀則. 以嘉靖甲子五月二十二日生, 天啓壬申三月十六日卒, 十月初六日, 葬廣州王倫里五峯山下向卯之原, 判書府君墓西三里. 有三子. 長益礪, 次克孚, 皆早世. 克孚一女慶琬, 生必達・必興. 季諱克亨, 以學行名世, 官工曹正郎贈左贊成. 有五男三女. 男長諱澄, 文科觀察使贈領議政. 三子, 構, 右議政, 棣, 副正, 楙, 正郎. 女尹商明. 次澹生員, 無后. 次混監役, 二子, 檣・檍, 女徐元涉・沈澈・鄭瀟. 次洵通政府使, 三子樟・栩・枋, 女密豊都正坦. 次涀五子樛・櫰・檥, 餘幼, 女未行. 女, 長進士趙世達, 生鴻祥生員, 鴻賓・鴻慶・鴻逵・鴻弼. 次, 宗廟令朴尙一, 生受益・道益. 次, 司諫任元耉, 生璟都事. 構二子希魯・在魯, 俱進士. 女佐郎黃啓河・徐命均・朴師淹. 棣五子正魯・取魯・省魯, 餘幼. 女, 進士鄭錫祚・黃在河・兪岦. 楙三子, 興魯・得魯・益魯. 女, 李德年・安重觀. 內外曾玄, 總百數十人. 壬申後七十二年癸未, 進贈今封, 仍改墓前石, 略叙世次子孫于後以爲識. 曾孫 大匡輔國崇祿大夫 議政府右議政 兼領經筵事 監春秋館事, 構謹書, 甲申(1704)正月 日立.]
『金石續帖』 暑字冊 「贈貞夫人安東權氏墓碣」
有明朝鮮贈貞夫人安東權氏墓碣銘幷序 玄孫, 大匡輔國崇祿大夫 議政府領議政 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 世子師 致仕奉朝賀 在魯謹撰 玄孫, 大匡輔國崇祿大夫 議政府左議政 兼領經筵事監春秋館事 世子傅 若魯謹篆 玄孫, 大匡輔國崇祿大夫 議政府領議政 兼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 世子師 致仕 奉朝賀 尙魯謹書 贈貞夫人安東權氏, 贈吏曹判書淸風金公諱仁伯之配也. 權爲三韓望族, 麗朝壁功臣太師幸之後, 高祖兵曹判書花川君襄平公諱晸, 曾祖司憲府監察諱曼衡, 祖靑松府使諱鎔, 考振威縣令贈吏曹判書諱大勳, 妣羅州吳氏左贊成貞簡公諱謙女. 以嘉靖甲子五月二十二日生, 夫人自幼孝友慈恕, 不與人爭. 性寡慾, 喜施與, 絶無干求. 吳夫人亟稱其賢, 及行, 尊舅已先逝, 事姑安夫人如母, 待娣姒如姊妹, 庭無間言. 安夫人嘗有疾沈淹, 判書公幹, 醫藥, 夫人主中饋. 處隔壁小室, 而叱咤之聲, 未嘗或聞. 逐日親執刀匕, 具甘旨, 不委婢使, 如是者三歲, 人不堪其勞, 而終無倦色. 安夫人每有事, 必召夫人相議, 得夫人衣服飮食, 必歎賞曰: “手格當如是也.” 夫人愈益謹遜. 夫人在親家, 値俗節, 吳夫人欲具時食爲夫人餉其姑. 夫人力止之, 輒於私室, 率一婢, 自爲具以進. 鍾愛諸子, 惟恐或傷, 而若見有過失, 則必嚴責曰: “此非余嫉汝, 乃所以仁汝也.” 暇日爲諸子, 從容言前世事行, 亹亹敎勉, 仍涕泣曰: “昔我先夫人, 常言: ‘兒子滿吾意者, 滿於人意,’ 吾不敢忘也. 家甚貧, 奉祀必豊潔, 粢盛魚菓, 宿辦而謹儲之, 不以他用. 遇人誠意款至, 人亦靡不嚮服. 祀饗殺犢, 則惻然不忍食其肉. 姨兄李延平貴, 判兩銓, 屢訪夫人, 而夫人一無所干囑. 其廉介類此.

夫人生長外家, 習見豪華, 逮歸儒寒之門, 朝夕殆不給, 而安之若素. 治家御僕, 井井有法度, 黽勉有亡. 辛勤事育, 用能使判書公, 守志勵行, 不以生事攖累者. 寔夫人之內助多焉.
夫人以崇禎壬申三月十六日棄世, 春秋六十有九, 十月六日, 葬于廣州王倫里五峯山下卯向之原, 東距判書公墓三里.
判書公世系具在公墓碣後, 以孫曾貴, 累贈判書公官, 夫人從贈如例.
擧三男. 長益礪, 無后. 中克孚, 只有一女, 適慶琬. 季克亨, 工曹正郎贈左贊成. 有五男三女. 男澄全羅道觀察使, 澹生員, 混同知中樞, 洵同知敦寧, 涀贈參判. 女適進士趙世達郡守, 朴尙一司諫, 任元耇. 觀察三男, 構右議政. 楺吏曹參判大提學, 楙公州牧使同樞. 二男檣檍. 同敦三男, 槹承旨, 栩, 枋郡守. 參判五男, 樛, 榑兵使, 檥爲生員後, 橈, 楈. 日希魯參判, 在魯領議政, 右相出也. 正魯佐郎, 取魯參判, 省魯判決事, 若魯左議政, 尙魯領議政, 吏參出也. 興魯, 得魯都事, 益魯縣監, 牧使出也. 迪魯, 檣出也. 詹魯, 檍出也. 寂魯. 述魯府使, 恒魯郡守, 升魯爲榑後, 槹出也. 甲魯進士, 鳴魯判官爲栩後, 枋出也. 淵魯, 樛出也. 文魯, 纘魯五衛將, 章魯監察, 橈出也. 濟魯, 庶出也. 五代孫, 致萬侍直, 致一正, 致仁判書, 致彦, 致良正郎, 致永進士, 致溫牧使, 致誾, 致勛, 致恭府使, 致恪生員, 致讓修撰, 致福, 致祿, 致禧, 致祺, 致誠奉事, 致敬, 致明, 致禹, 致健, 致信, 値和, 致聖, 致澤, 致益, 致舜. 六代孫, 鍾厚副率, 鍾秀正郎, 鍾善, 鍾卨正郎, 鍾喆, 鍾寂, 鍾烈, 鍾協縣監, 鍾五, 鍾章, 鍾韶. 其餘未娶者, 凡非嫡出者, 曾孫以下, 女及女之出, 繁不錄.
嗚呼夫人之淑德懿行, 從古鮮倫, 而一生窮約, 中歲寡居. 長仲二子, 皆甚賢, 有文而不得終孝. 天之報施, 疑若有舛. 雖然季子正郎公, 以篤學爲世名儒. 子姓蕃衍, 門戶顯赫, 愈遠未艾, 玆豈非判書公暨夫人積德委祉垂訓啓慶之驗與! 天道久乃定, 信乎其非誣也. 謹爲之銘曰:
粤我高祖, 力學敦行, 家法式正. 懿哉夫人, 克配克相, 梱範輝朗.
裕其爲人, 肅其爲禮, 剛柔中制. 孚于宗黨, 化于鄕里, 咸曰女士.
親有旨甘, 祭則潔豊, 誰識屢空? 敎子之嚴, 三胤俱賢, 季有大焉.
積厚施遠, 後承蕃赫, 夫人之德. 噫夫人德, 古圖書記, 何以加此?
天道福善, 始若少僭, 久而益險. 貤贈累賁, 享祀無斁, 報于弗食.
五峯之麓, 山迴水長, 體魄攸藏. 刻文貞石, 載播其馨, 永世儀刑.
崇禎紀元後三癸未(1763)四月立

▮ 참고문헌

『金石錄』(목록) 필사본 1책, 고려대 도서관 한적실 육당문고 소장.
『金石錄』(탁본첩) 27책, 고려대 도서관 한적실 소장.
『金石集帖』 1책(得字冊), 서울대 규장각 소장.
『金石集帖』·『金石續帖』 217책, 일본 교토대학 부속도서관 소장.
金構, 「曾祖妣贈貞夫人權氏墓表」, 『觀復齋遺稿』.
金楑, 「伯姊處子金氏墓表」, 『儉齋集』.
金在魯 저, 정병섭 역, 『(譯註) 禮記補註』, 學古房, 2018.
金在魯 저, 『本末錄』 1-7, 淸風人學術硏究會, 1988.
金致萬 撰, 「領議政奉朝賀李公陶谷李公墓碣自銘」, 일본 오사카부립 나카노시마도서관 탁본. 帖裝1帖(8折),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해외한국학자료센터 제공.
李天輔, 「貞夫人李氏墓誌銘」, 『晉菴集』.
『조선왕조실록』, 국사편찬위원회 편, 탐구당, 1981.
『승정원일기』, 한국고전번역원, 국사편찬위원회 제공 DB.

구자훈·한민섭, 「金在魯 『金石錄』의 구성과 그 특징」, 『한국실학연구』 21, 한국실학연구회, 2011, 237-302면.
김민규, 「觀復齋 金構(1649~1704) 墓 石物 硏究」, 『향토 서울[현 서울과 역사]』 88, 서울역사편찬원, 2014, 69-103면.
藤本幸夫, 『日本現存朝鮮本硏究(史部)』, 동국대 출판부, 2018.
이충구 집, 『과천탁본자료집(果川 拓本資料集)』, 과천문화원, 2001.
박철상, 「조선시대금석학연구」, 계명대 박사학위논문, 2014.
심경호, 「교토대학 소장 금석집첩(金石集帖)에 대하여」, 『민족문화연구』 83,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9, 211-248면.
_____, 『한국의 석비문과 비지문』, 일조각, 2021.
王亞楠, 「18~19世紀 朝鮮 集字碑 一考 —顔眞卿集字碑 為中心」, 『東洋學』 78, 檀國大學校 東洋學硏究院, 2020.1, 141-158면.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해외한국학자료센터, https://riks.korea.ac.kr/kostma.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유산연구지식포털, http://portal.nrich.go.kr.
국립중앙도서관 통합검색 디브러리, http://www.nl.go.kr/nl/index.jsp.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역사정보시스템, http://www.koreanhistory.or.kr.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ttp://kyujanggak.snu.ac.kr.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자료센터, http://www.kostma.net.

【Abstract】

The Research on Compilation of *Kŭmsŏkchipch'ŏp* and *Kŭmsŏksokch'ŏp* —In regard to stone stele rubbing of Kim Chaero's direct ancestors and collateral relatives, and stele by Ch'ŏngp'ung Kim family authors—

Sim, Kyung-Ho*

The compilation of *Kŭmsŏkchipch'ŏp* in the late Chosŏn, the largest collection of stone stele rubbing, had started by Kim Chaero, who was a politician of Ch'ŏngp'ung Kim family. The facts that rubbing of his direct ancestors and collateral relatives' stele were arranged in extra volumes, and the author of *Kŭmsŏngnok*-which was likely the catalog to collect and organize rubbing prior to the compilation of *Kŭmsŏkchipch'ŏp*-was marked as Kim Chaero clearly show *Kŭmsŏkchipch'ŏp* was work of Kim Chaero. He was also eagerly cooperated with his nephew Kim Ch'iman and his sons, Kim Ch'iil and Kim Ch'iin in constructing stone stele and collecting rubbing of Ch'ŏngp'ung Kim family's female members. And at the same time, Kim Chaero gathered rubbing that manifest state identity of Chosŏn. After the death of Kim Chaero, Kim Ch'iin, Kim Chonghu, Kim Chongsu, Kim Chongchŏng, et al., compiled *Kŭmsŏksokch'ŏp* (The Sequel to *Kŭmsŏkchipch'ŏp*), including rubbing of Kim Chaero's stone stele and reorganizing *Kŭmsŏkchipch'ŏp* and *Kŭmsŏngnok*. The collection in *Kŭmsŏkchipch'ŏp* and *Kŭmsŏksokch'ŏp* suggests open and comprehensive attitude toward hierarchy and regional background of the deceased. However, while the editors were not lean toward collecting stele written by Ch'ŏngp'ung Kim family authors, the selection demonstrates political bias. This ambivalent characteristic of *Kŭmsŏkchipch'ŏp* requires further research.

Keywords: *Kŭmsŏkchipch'ŏp*, *Kŭmsŏksokch'ŏp*, Kim Chaero, *Kŭmsŏngnok*, Kim Ch'iman, Kim Ch'iil, Kim Ch'iin, Kim Chonghu, Kim Chongsu, Kim Chongchŏng, stone stele of deceased females.

접수일: 2022.07.01. ‖ 심사일: 2022.07.18. ‖ 게재확정일: 2022.08.22.

* Emeritus Professor, Dept. of Classical Chinese, Korea Univ.